

[번역]

인도 가정 제식의례의 변용*

—바라문 가장의 아침 일과를 실례로—



에이노우 신고(永ノ尾 信悟)**

박 문 성 옮김

[가톨릭대학교 동양철학 교수·신부]

- I. 들어가는 말
- II. 미틸라 지방의 삼디아우파사나
- III. 슈라우타 제식문헌의 아그니호트라
- IV. 가정 제식문헌의 아침과 저녁 헌공과 바이슈바데바
- V. 가정 제식문헌에 대한 보유문헌의 삼디아우파사나
- VI. 삼디아우파사나의 성립과 아침 행위의 의례화
- VII. 결론: 아침과 저녁 의례의 변용과 탈 베다화

* 본 글은 『インド=複合文化の構造通号』(京都: 法蔵館, 1993)의 261~318쪽에 게재된 에이노우 신고(永ノ尾 信悟)의 논문 「ヒンドウー儀禮の變容-朝の勤行を例として-」를 번역하였다. 원제목은 「힌두 의례의 변용 —아침 일과를 예로서—」이지만, 번역문에서는 「인도 가정 제식의례의 변용 —바라문 가장의 아침 일과를 실례로」로 하였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례용어를 국어에 맞게 수정하거나, 소재목에 번호를 매기거나, 역주를 삽입하거나, 永ノ尾 信悟(1989)를 참조하여 본문 내용을 추가하였다. 역주의 산스크리트 원문은 永ノ尾 信悟(1989)를 재인용한 것이다.

** 에이노우 신고는 교토대학문학부(京都大學文學部)를 졸업(1971)하고, 동 대학 문학연구과의 범어학범문학(梵語學梵文學) 전공 박사과정(1973~1976)을 다녔고, 독일의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1986)를 취득하였고, 일본 국립민속학박물관(1987~1991)과 도쿄대학(東京大學) 동양문화연구소 교수(1991~2013)로 재직하면서 인도 종교일반(宗教一般), 베다제식(祭式), 힌두의례(儀禮)와 관련된 권위를 지닌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다. 본 논문은 저자가 1987~1988년에 북인도 비하르(Bihar)주의 북부 미틸라(Mithilā) 지방을 방문하여, 바라문 가장이 거행하는 아침 예배를 관찰하고, 그것과 고대인도 제식문헌에서 규정된 의례와의 상관관계를 밝힌 것이다. 본 번역문을 통해 베다시기부터 인도 가정과 공동체의 사제(司祭)로서 역할을 한 바라문 가장의 아침 일과, 특히 제식과 관련된 일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가톨릭교회 전례 및 제식행위들의 제의적 의미를 유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 들어가는 말

필자는 1987~1988년에 북인도 비하르(Bihar)주의 북부에 있는 미틸라(Mithilā) 지방에서 마하데바푸자(mahādevapūjā)¹⁾라는 의례(儀禮)²⁾를 경험했다. 이것은 바라문 가장(grhapati, 가정의 주인)이 매일 아침 지키는 일과로서 기본적으로 둘로 구분된다. 전반부는 가정 제식문헌(grhyasūtra)³⁾에 기원을 둔 삼디야우파사나(samdhyā- upāsana, 혹은 samdhyopāsana) 의례, 즉 ‘[낮과 밤이] 연결되는 시간의 예배’⁴⁾라는 의례이고, 후반부는 베다시기 이후 형성된 것으로 쉬바(Śiva) 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들을 예배하는 것이다.

필자에게 의례를 보여준 자(Jha, L. K.)씨는 먼저 집 옆 우물가에서 목욕하고, 입었던 옷(dhoti)을 빨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물 단지에 물을 담아 집으로 돌아와서, 초가지붕 베란다에서 짚으로 만든 작은 돛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자신 앞에 동(銅) 그릇과 손가락처럼 생긴 제식도구를 늘어놓고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시작한다.

의례행위 자체는 외견상으로 매우 단순하다. 손가락처럼 생긴 제식도구에 물을 담아서 조금 큰 접시에 옮겨 담는 것이 주요 동작이다. 그런데 그는 의례행위를 하는 동안 끊임없이 작은 소리로 만트라를 읊조린다. 만트라 대부분은 역사적으로 3천년 가까이 거슬러

1) 필자는 永ノ尾 信梧(1989)에서 마하데바푸자(Mahādevapūjā)에 대해 보고했다. 의례에서 사용된 만트라를 번역하고, 산스크리트어 문헌과 출처를 제시했으며, 다양한 의례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각주로 정리했다. 이하 서술에서는 만트라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만트라의 출처와 의례용어에 관해서는 永ノ尾 信梧(1989)를 참조하라.

2) (역주) 필자는 ‘의례’(儀禮) ‘용구’(用具)라고 기술하지만, 번역문에서는 ‘입문의례’ 혹은 ‘결혼의례’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의례’로, 구체적으로 제사 혹은 제관과 관련된 경우는 ‘제식’으로 번역한다. ‘용구’는 ‘도구’(道具)로 번역한다.

3) (역주) 가정의례를 규정한 ‘그리히야수트라’(grhyasūtra)는 ‘가정 제식문헌’으로, 제주(주로 공동체의 수장)가 다수의 제관들에게 의례하여 행하는 제식을 규정한 ‘슈라우타수트라’(śrautasūtra)는 ‘슈라우타 제식문헌’으로 번역하고, 필요할 경우는 음사한다.

4) (역주) 이것은 삼디야우파사나(samdhyopāsana)라고도 불리는데, 전통적으로 아침과 저녁 두 번 행한다는 견해와 정오(正午)를 포함해서 세 번 거행한다는 견해가 공존한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예시되는 제이(J) 마을에서는 하루 한 번, 즉 아침에만 행한다. 永ノ尾 信梧(1989), 382쪽, 각주 3.

올라갈 수 있는 베다문헌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는 만트라를 통해 의례적으로 몸의 부정(不淨)을 털어버리고, 태양을 예배하고, 가야트리(gāyatri) 만트라를 마음속에서 읊조리면서 신들, 선인(仙人)들, 자기 조상의 영들을 만족시키는 예배(tarpana)를 거행한다.

이렇게 전반부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마치고 후반부 바이슈바데바(vaiśvadeva) 제식으로 옮겨가는데, 그는 힌두교의 대표적 18신(神)에게 꽃, 향, 물, 간단한 공물을 헌공(獻供)하며 예배한다. 필자는 후반부의 신들에 대한 예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신들을 헌공하지는 않지만, 전반부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중심으로 거행되는 아침 일과는 미틸라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여러 연구보고에 따르면,⁵⁾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중심으로 하는 아침 일과가 현재 인도 각지에서 가장이 행하는 아침의례의 일반적 형태이다. 따라서 현재 인도에서 바라문 가장이 행하는 아침의례는 대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필자는 인도 현지에서 실제 종교의례를 관찰할 기회를 갖기 전, 베다문헌을 통해 고대인도의 종교의례를 연구하였다. 그런데 베다 시기의 종교의례를 규정한 슈라우타 제식문헌(śrautasūtra)이 아침과 저녁 일과로 규정한 아그니호트라(agnihotra)가 현재 인도에서 발견되는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와 전혀 다름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문헌사적으로 이 변화가 어느 시대에 발생했는지 밝히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 인도에서 관찰된 사실에서 출발하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현재 거행되는 삼디야우파사나 의례가 문헌사적으로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과 다른 의례를 가르치는 베다문헌에서는 어떤 의례가 거행되었고, 그 베다의례가 어떤 변용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로 성립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 고대

5) Vidyārṇava(1918)는 벵갈(Bengal)과 인도 북부에서 행해지는 제식을 전통적인 베다 학파에 기초하여 기술한다. Srinivasna(1973: pp.176~178)는 마하라스트라(Mahārāṣṭra)의 바라문의 사례를 보고하고, Dubois(1906: pp.251~269)는 19세기 전반기 남인도의 실례를 소개한다. 또한 Goudriaan(1970: pp.167~168)은 남인도 바이카나사(Vaikhānasa) 학파의 사원의 승려의 실례를 언급한다. 永ノ尾 信梧(1989) 382쪽 이하를 참조하라.

인도의 몇 개의 제식문헌을 단서로 해서 검토할 것이다.

II. 미틸라 지방의 삼디야우파사나

필자가 비하르주 마두바니(Madhubani) 군의 제이(J)촌에서 관찰한 아침 일과인 마하데바푸자의 전반부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동작 자체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함께 읊조리는 만트라 중심으로 소개한다. 우물에서 목욕을 한 자(Jha)씨가 짚으로 만든 자리에 앉아 제식도구를 준비하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2.1. 몸의 정화

손가락으로 오른 손바닥에 물을 조금 담고 만트라를 읊조린다.

옴. [그가] 부정(不淨)해도 깨끗해도, 또한 어떤 상태에 있어도 연꽃(蓮) 눈을 지닌 신(Viṣṇu)을 상기하는 자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깨끗하다.⁶⁾

“옴. 연꽃 눈을 지닌 신은 정화하기를”⁷⁾라고 읊조리고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물을 뿌린다. 잠시 명상하고 오른손으로 물을 조금 마시고 오른 손바닥에 물을 담아 무릎에 놓고 만트라를 읊조린다.

옴. 그리고 우주적 법칙(天測, *rta*)과 진실(*satya*)이 요동치게 만드는 열력(熱力, *tapas*)에서 태어났다. 그것에서 밤이 태어났다. 그것에서 파도치는 대양(大洋)이. 파도치는 대양에서 1년(一年)이 태어났다. 눈을 깜빡거리는 일체를 지배하는 자가 낮과 밤을 만든다. 창조자는 태양과 달을 순서대로 갖춰놓는다. 하늘, 땅, 허공, 그리고 태양을 스바하(*svāhā*).⁸⁾

6) (역주) *om apavitraḥ pavitro vā sarvāvasthāṇ gato 'pi vā/ yaḥ smaret puṇḍarikākṣaṃ sa bāhyābhyantaraḥ śuciḥ//* 만트라의 출처는 알 수 없다. 永ノ尾 信梧(1989), 389쪽, 각주 15.

7) (역주) *om puṇḍarikākṣaḥ punātu//* 만트라의 출처는 알 수 없다. 永ノ尾 信梧(1989), 389쪽, 각주 16.

8) (역주) *om rītām ca satyām cābhīdhāt tāpasó 'dhy ajāyata/ tāto rātry ajāyata tātaḥ samudró*

세 번 앞에 놓인 그릇에 물을 버리고, 물을 한 번 마신다. “옴. 물은 나를 지키소서”⁹⁾라고 읊조리고 오른손으로 머리 주변에 물을 뿌린다. 이 행위로 그는 의례적으로 정화된다. 이때 세계창조와 관련된 만트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자 이름이 ‘죄를 닦아내는 자’라는 아가마르샤나(aghamaṣṣaṇa)이기 때문인 것 같다.

2.2. 조식(調息, prāṇāyāma)

얼굴 앞으로 합장하고 ‘옴(om, 聖音), 7개 비야흐리티(vyāhṛti, 비밀스런 발성), 가야트리(gāyatrī) 만트라’ 각각에 관련된 저자, 운율, 성격, 사용법을 읊조린다.¹⁰⁾ 오른손 엄지로 오른쪽 콧구멍을 누르고, 중지와 약지로 왼쪽 콧구멍도 눌러 막는다. 그 간격은 각각 30초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엄지를 떼고 왼쪽 콧구멍만 약 15초 누른다. 그리고 만트라를 읊조린다.

옴. 물은 광휘(光輝), 정수(精髓), 불사(不死), 브라만(Brahman), 부루(Bhūr), 브바(Bhuvah), 스바르(Svar), 옴.¹¹⁾

조식(調息)을 하며 콧구멍을 막는 동안, 그는 옴(om) 만트라, 7개의 비야흐리티(vyāhṛti), 그리고 ‘사비트리(sāvitrī) 신과 같은 뛰어난 광휘를 우리가 받아서, 그가 우리 사고를 고무하기를’ 내용으로 하

arṇavāh// samudrād arṇavād ādhi saṃvatsaró ajāyata/ ahorātrāṇi vidādhad vísvasya miṣató vaśi// sūryācandramāsau dhātā yathāpūrvām akalpayat/ divaṃ ca prthivīm cāntāriksam ātho svāh//RV 10.190.1~3// 아가마르샤나(aghamaṣṣaṇa)가 저자라고 알려진 ‘죄를 닦아내는 찬가’(aghamaṣṣaṇa sūkta)는 창조와 관련된 것과 말의 희생제의 마지막 목록에서 사용된다. 永ノ尾 信梧(1989), 390쪽.

9) om āpo mām abhirakṣantu// 이 만트라의 출처를 알 수 없다. 永ノ尾 信梧(1989), 391쪽, 각주 22.

10) (역주) savyāhṛtipraṇavakāḥ prāṇāyāmās tu ṣoḍaśa/ api bhrūṇahaṇaṃ māsāt punanty ahrāhaḥ kṛtāh//MS. 11.249// “비야흐리티(7개의 세계의 이름)와 함께 [聖音] ‘옴’을 읊조리고 16회의 조식을 매일 반복한다면 학식 있는 바라문의 살해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후에는 정화될 것이다.” 渡辺 章梧(1992), 185쪽.

11) om āpo jyōti rāso 'mītam brāhma bhūr bhūvah sūvar om//TA 10.27//.

는 가야트리, 즉 사비트리(sāvitrī) 만트라¹²⁾를 세 번 읊조린다.

2.3. 입 닦기(ācamana, 훔쩍이는 것)

다음으로 입을 닦는 의례행위를 한다. 오른손으로 손가락을 잡고 물을 한 번 마시고, 오른손에 물을 담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만트라를 읊조린다.

태양은, 분노는, 분노의 신은 [내가] 분노 때문에 범한 죄로부터 나를 지키소서. 내가 밤에 마음으로, 말로, 양손으로, 양 다리로, 배로, 성기로 범한 죄, 그것을 받은 깨끗이 하소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악행이라도, 지금 나는 불사(不死)를 모태로 하는 태양 가운데, 광휘 가운데에 나를 현공한다. 스바하.¹³⁾

마지막 “스바하”를 하는 동시에 오른손의 물을 버리고 새 물을 오른손으로 마시고 입술을 닦고 오른손에 물을 담았다가 버린다. 손바닥을 위쪽으로 오른손을 무릎 위에 놓고 만트라를 읊조린다.

물은 대지를 정화하라. 정화된 대지는 나를 정화하라. [물과] 브리하스 파티는 정화하라. 브라만에게 정화된 [대지는] 나를 정화하라. 남은 것을, 향수해서는 안 되는 것을, 또한 내가 행한 악행을, 나의 모든 것을 물은 정화하라. 그리고 좋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을. 스바하.¹⁴⁾

마지막 “스바하”라고 하고 오른손의 물을 그릇에 버리고, 그 손으로 물을 마시고 입술을 문지른다. 이것이 입을 닦는 행위이다.

12) tát savitūr vāreṇyaṃ bhārgo devāsya dhimahi/ dhīyo yó naḥ pracodāyāt//RV 3.62.10//.

13) (역주) om sūryās ca manyuś ca manyupatayaś ca manyukṛtebhyaḥ/ pāpebhyo rakṣantām/ yad rātriyā pāpam akārṣam/ manasā vācā hastābhyām/ padbhyām udareṇa śísñā/ rātris tad avalumpatu/ yat kiṃ ca duritam mayi/ idam ahaṃ mām amṛtayanau/ sūrye jyotiṣi juhomi svāhā//TA 10.25:742.15-19//.

14) (역주) āpaḥ punantu pṛthivīm pṛthivī pūtā punātu mām/ punāntu brāhmaṇaspátir brāhmapūtā punātu mām// yād ūcchiṣtam ābhojyaṃ yád vā duścáritam máma/ sárvaṃ punantu mām āpo 'satām ca pratigrāham// svāhā//TA 10.23:740.23-741.1//.

2.4. 신체를 닦는 것(mārjana)

그는 의례적으로 신체를 닦는 의례행위를 행한다. 왼손바닥에 물을 담아서 오른손으로 덮고 3개 만트라를 읊조린다.

옴. 그대들 물은 열매에 원기(元氣)를 불어 넣기를. 옴. 그러한 그대들이 우리를 자양(滋養) 안에 머물게 하기를.¹⁵⁾

옴. 큰 기쁨을 보기 위하여. 옴. 무엇보다 뛰어난 그대들의 정수(精髓). 옴. 그것을 우리에게 이곳에서 나누어 주기를. 옴. 기꺼이 어머니들이 하듯이.¹⁶⁾

옴. 그를 위해 우리는 그대들에게 나아가나니. 옴. 그대들이 그의 집으로 우리를 몰아붙이길. 옴. 우리를 태어나게 하길. 그 사람을 위해. 옴.¹⁷⁾

그리고 “옴”이라고 읊조리는 동안,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물을 잡는 것처럼 해서 머리로부터 뺨에 물을 뿌린다. 다시 왼손에 물을 담아서 오른손으로 덮고 만트라를 읊조린다.

나무 기둥으로부터 풀러난 자처럼, 땀을 흘리고 나서 목욕을 통해 오염에서 벗어난 자처럼, 정화 도구로 정화된 녹은 버터와 같이, 물이 죄로부터 나를 정화하기를.¹⁸⁾

15) (역주) om āpo hi śthā mayobhúvas tā na ūrjé dadhātana/ om mahé rāṇāya cáksase//RV 10.9.1// 이하 세 만트라를 RV 10.9.1~3에 om을 삽입한 것이다. “옴. 물이여. 실로 존 재함으로 상괘함을 지닌 그대는 우리에게 강인함을 주소서. 옴. 우리 눈으로 기쁨을 보기 위해”(역자 번역).

16) (역주) om yó vah śívátamo rásas tásya bhājayatehá nah/ om usatír iva mātárah//RV 10.9.2// “옴. 그대는 가장 상서로운 음료(rása-), 여기서 우리가 그 [상서로움을] 나눠 갖게 하소서. 옴. [자녀에게 모유를 주기를] 원하는 어머니처럼”(역자 번역).

17) (역주) om tasmā āram gamāma vo yásya kṣáyāya jínvatha/ om āpo janáyathā ca nah//RV 10.9.3// “옴. 그의 [의도에] 걸맞게 우리가 그대에게 나아갑니다. 그가 머무는 곳(定住)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그대가 [우리를] 재촉하기를. 옴. 물이여. 그래서 그대가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기를”(역자 번역).

18) (역주) om drupadád iva mumucānāh svinnāh snāto málād iva/ pūtām pavitreṇaevājyam ā pah śundhantu manínasah//VS 20.20// AV 6.115.3은 śantó를 snātvá로 읽는다. 永ノ尾 信梧(1989), 398쪽, 각주 44.

만트라 “~와 같이”라는 구절을 읊조리고 오른손 손가락 전체로 물을 잡는 것처럼 해서, 앞의 그릇에 세 번에 걸쳐 버린다. 만트라를 끝맺으면서 왼손의 물을 오른손으로 옮겨서 머리에 뿌린다.

2.5. 불결함을 털어버림(ahamaṣana)

불결함을 털어버리는 행위가 이어진다. 앞부분에서 의례적으로 신체를 닦는 행위를 할 때 사용했던 세계창조의 내용을 담은 만트라를 다시 읊조린다. 오른손에 물을 담고 만트라 앞부분의 “옴”을 읊조리고, 오른손을 펼쳐서 얼굴 앞에 유지한 채 다시 만트라를 읊조린다. 만트라 마지막 “스바나”를 하는 동시에 오른손의 물을 앞에 놓인 그릇에 버린다. 다시 오른손에 물을 담아 오른쪽 무릎에 올려놓고 만트라를 읊조리고, 마지막 “옴”을 하면서 물을 마신다.

옴. 존재물 가운데에, 둥굴 가운데에, 그대는 모든 방향을 향해서 움직인다. 그대는 제식(祭式). 그대는 “바삿트(vaṣat)”라고 발성하는 소리. 물은 광휘, 정수, 부루, 브바, 스바르. 옴.¹⁹⁾

2.6. 태양의 예배(sūrya-upathāna)

그는 태양을 예배한다. 우선 1개의 만트라를 읊조리는데, 앞쪽 “옴”을 발성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양손으로 잡은 손가락의 손잡이 쪽으로 그릇에 물을 한 번 버리고 마지막 만트라를 읊조린다.

옴. 우리는 어둠의 저쪽으로부터 최고의 광휘를 보고서, 신들 중의 신, 태양에 이르렀다. 최고의 광휘에.²⁰⁾

양 손바닥을 앞으로 향했다가 양쪽 귀 옆을 가린다. 그리고 얼굴

19) (역주) om̐ antaś carasi bhūteṣu guhāyām̐ viśvatomukhaḥ/ tvam̐ yajñas tvam̐ vaṣatakāra āpo jyoti raso 'mṛtam̐// bhūr̐ bhuvaḥ svah̐//ŚaikhS 9.16:356.10-11//.

20) (역주) om̐ úd vayām̐ tām̐sas pári jyóth̐ pásyanta úttaram̐/ devām̐ devatrā sūryam̐ áganma jyótir̐ uttamám̐//RV 1.50.10//.

앞으로 양손을 V자 형태로 펼치고 만트라 2개를 읊조린다.

그리고 저 자타바타스(Jātavedas) 신을 광선이 위로 옮긴다. 모든 자가 태양을 보도록.²¹⁾

빛나라. 신들의 얼굴은 날아오른다. 미트라(Mitra)의, 바루나(Varuna)의, 아그니(Agni)의 눈은 천지를 [채우고] 허공을 채운다. 태양은 움직이는 것 [그리고] 멈춰있는 것의 아트만(自我).²²⁾

양손을 꽃봉오리 모양으로 모아서 태양을 예배하며 만트라를 읊조린다.

음. 신들이 저 눈(目)을 놓아둔다. 하얗게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백 년 동안 보고 싶다. 백 년 동안 살고 싶다. 백 년 동안 듣고 싶다. 백 년 동안 이야기하고 싶다. 백 년 동안 약해지고 싶지 않다. 그리고 백 년 이상도. 음.²³⁾

만트라를 마치고 오른손 손가락을 가볍게 모아서 젓가슴 사이, 뺨, 뒤통수,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차례로 만지고, 검지와 중지 로 양 눈을 만지고, 가볍게 손을 두드리고, 마지막으로 입술에 손을 가볍게 가져간다. 이 동작을 세 번 반복하고 태양의 예배를 마친다.

2.7. 가야트리 만트라의 명상(gāyatrī-japa)

그는 조식(調息)을 하고 가야트리 만트라를 침묵 중에 읊었다. 이때 다시 만트라를 침묵 중에 읊지만, 이때는 읊기 전에 몇 가지 행위를 한다. 우선 가볍게 모은 양손을 다리 위에 올려놓고 3개 만트라를 읊조린다.

21) (역주) om ūd u tyām jātavedasaṃ devāṃ vahanti ketāvaḥ/ drśe vísvāya sūryam//RV 1.50.1//.

22) (역주) om citrām devānām ūd agād ānikam cākṣur mitrāsya vāruṇasyāgnēḥ/ āprā dyā vāprthivī antārikṣam sūrya ātmā jāgatas tasthūśas ca//RV 1.115.1//.

23) (역주) om tāt cākṣur devāhitam śukrām uccārat/ pāsya śaradaḥ śatām jīvema śaradaḥ śatām//RV 7.65.16// śrṇuyāma śaradaḥ śatam prabravāma śaradaḥ śatam/ adīnāḥ syāma śaradaḥ śatas bhūyas ca śaradaḥ śatāt// om// 만트라의 후반부는 출처를 알 수 없다.

음. 흰 색이라 이름 붙여진 비단의 의복을 걸친, 하얀 화장과 꽃 장식
으로 꾸미고, 태양의 원반 가운데 서 있는 브라만의 세계에 도달하여 염
주(數珠)를 두른 여신, 연꽃 자리에 앉은 청정한 자.²⁴⁾

그대는 위력. 그대는 하얀 빛남. 그대는 불사. 그대는 신들이 좋아하는
장소로서 그곳. 그는 파손되지 않는 제사 장소(祭場).²⁵⁾

그대는 가야트리. 그대는 외다리, 두 다리, 세 다리, 네 다리, 다리 없
는 자가 된다. 왜냐하면 그대는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는 네 번째로
현시(顯示)되었다. 세계 저쪽의 다리에 경배(頂禮, 스승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이마를 대고 절함). 어떤 자도 그것에 도달하는 일이 없기를.²⁶⁾

만트라를 읊조린 다음, 양손으로 손가락을 잡고 여신으로 생각되
는 가야트리 신을 초대하는 만트라를 읊조린다.

음. 오소서. 원망(願望) 이루어주는 분이여. 여신이여. 3음절로 만들어
진 분이여. 브라만을 말하는 분이여. 가야트리요. 운율의 어머니여. 나의
곁에 있기를.²⁷⁾

양손으로 손가락을 잡고 물을 손잡이 방향으로 물단지에 버린다.
이처럼 가야트리를 여신으로 생각하고 명상하고 예배하고 초대하
다음, 양손으로 25개 무드라(mudrā)를 만든다. 손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양(印)을 만들어 가면서, 각 무드라의 명칭을 열거하고 마지막으
로 무드라를 만드는 이유를 언급하는 만트라를 읊조린다.

24) (역주) om śvetavarṇā samuddiṣṭā kauśeyavasānā tathā/ śvetair vilepanaiḥ puṣpair alamkārais
ca śobhitā// ādityamaṇḍalāntaḥsthā brahmalokagatāthavā/ akṣasutradharā devī padmāsanagatā
śubhā// 만트라의 출처는 알 수 없다. 永ノ尾 信梧(1989), 400쪽, 각주 52.

25) (역주) om tējo 'si śukrām asy amṛtam asi/ dhāma nāmāsi priyām devānām ānādhṛṣṭam
devayājanam asi//VS 1.31//.

26) (역주) gāyātri asy ēkapādi dvipādi tripādi cātusṣpady āpad asi na hī pādyaśe/ nāmas te
turīyāya darsātāya padāya parōrajase 'śāv adō mā prāpad//ŚB 14.8.15.10//.

27) (역주) om āgaccha varade devi tryakṣare brahmavāḍini/ gāyātri cchandasām mātār jape me
samnidhau bhava// 유사한 만트라가 NP 1.27.43-44에 있다. “음. 오소서. 원망(願望) 이
루어주는 자여. 여신이여. 3개의 음절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여. 브라만을 말하는 자
여. 가야트리요. 운율의 어머니여. **바라문을 모테로 하는 분이여. 그대에게 경배하
나니**”(āgaccha varade devi tryakṣare brahmavāḍini// gāyātri cchandasām mātār brahmayone
namo 'stu te/).

옴. 모은 형태, 반구(半球)의 형태, 펼친 형태, 늘린 형태, 한 개의 얼굴 형태, 두 개의 얼굴 형태, 세 개의 얼굴 형태, 네 개[의 얼굴 형태], 다섯 개의 얼굴 형태, 시간의 얼굴 형태, 아래로 향한 얼굴 형태, 그리고 편만한 합장 형태, 짐수레 형태, 야마(yama)의 덧 형태, 묶은 형태, 모아서 위로 향하는 형태, 아래로 걸친 형태, 주먹을 쥔 형태, 물고기 형태, 거북이 형태, 뗏되지 형태, 사자가 걷는 형태, 크게 걷는 형태, 망치 형태, 그리고 보자기 형태. 이런 무드라를 알지 못하면 가야트리느 쓸모없는 것이다.²⁸⁾

만트라를 읊조리면서 무드라를 만든 다음, 왼쪽 어깨에 걸친 수건 밑단으로 오른 손을 덮고 1분 10초(70초) 정도 명상한다. 그는 그 시간 동안 7개 비야흐리티(vyāhrti), 가야트리 만트라(gāyatrī-mantra), 가야트리의 정수라 불리는 만트라를 한 묶음으로 몇 번 마음속으로 읊조린다. 이어서 명상을 마치고 조용하게 만트라를 읊조린다.

옴. 북쪽 산 정상에서 태어난 자요. 지상의 산에서 살고 있는 자요. 브라만 신에게 허락받은 자요. 가시오. 여신이어. [그대가 원하는 곳으로.²⁹⁾

2.8. 타르파나(tarpaṇa) 제식

그는 양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손잡이 쪽으로 물을 조금씩 그릇에 흘리면서, 신들, 선인들, 조상의 영들을 물로 만족시키는 타르파나를 한다. 첫째, 신들을 위한 타르파나를 하며 만트라를 읊조린다.

옴. [내가] 만족시켜야만 하는 신들은 오라.³⁰⁾

옴. 브라마는 만족하라. 옴. 비슈누는 만족하라. 옴. 루드라는 만족하라. 옴. 프라자파티는 만족하라.³¹⁾

옴. 신들, 약삭(Yakṣa)들, 나가(Nāga)들, 간다르바(Gandharva)들, 아프사라

28) (역주) DP 11.16.99-101. 永ノ尾 信悟(1989), 403쪽, 각주 56.

29) (역주) om uttare śikhare jāte bhūmyām parvatavāsini/ brahmanā samanujñāte gaccha devī yathāsukham// 만트라의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다. 永ノ尾 信悟(1989), 404쪽, 각주 58.

30) (역주) om tarpaṇīyā devā āgacchantu//.

31) (역주) om brahmā tṛpyatām/ om viṣṇus tṛpyatām/ om rudras tṛpyatām/ om prajāpatis tṛpyatām/.

스(Apsaras)들, 아수라(Asura)들, 무서운 뱀신, 수파르나(Suparna), 나무들, 잠바카(Jambhaka), 새들, 비द्या다라(Vidyādhara), 자라다라(Jalādhāra)들, 허공에 움직이는 자들, 의지할 것 없이 살아가는 자들, 악하고 부도덕적인 것에 기뻐하는 자들, 그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금 내가 물을 바친다.³²⁾

여기까지의 제식행위는 신들을 향한 것으로, 그는 거룩한 끈(聖紐)을 왼쪽 어깨로부터 오른쪽 겨드랑이로 걸쳤다. 이제 그것을 머리로부터 앞으로 늘어트리고 선인들을 위한 타르파나를 한다.

옴. 사나카(Sanaka)들은 오라. 옴. 사나카와 사난다(Sananda), 그리고 사나타나(Sanātana), 카필라(Kapila), 아수리(Āsuri), 보두(Voḍhu), 판차쉬카(Pañcaśikha)와 함께. 그들은 모두 내가 주는 물을 통해 언제나 만족하라.³³⁾

그는 만트라를 두 번 읊조리고, 성스러운 끈을 왼쪽 어깨로부터 오른쪽 겨드랑이로 고쳐서 걸치고 다른 선인들을 위한 타르파나를 행한다. 이런 형태로 성스러운 끈을 걸치는 것은 신에 대한 제식에 한정되기에, 아래 선인들을 신으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리치(Marīci)들은 오라”라고 읊조리고 “옴. 마리치들은 만족하라”라고 하면서 마리치들을 위한 타르파나를 한다. 이어서 둘째 만트라 문장³⁴⁾을 선인의 이름을 바꿔가며 사용한다. 아트리(Atri), 앙기라(Aṅgira), 푸라스타(Pulastya), 푸라하(Pulaha), 크라투(Kratu), 프라체타(Praceta), 바시스타(Vasiṣṭha), 브리구(Bhrgu), 나라다(Nārada)라는 9명을 포함한 10명의 선인을 위한 타르파나를 행한다.

다음으로 조상의 영들을 위한 제식에 걸맞게 성스러운 끈을 오른쪽 어깨로부터 왼쪽 겨드랑이로 걸치고, 조상의 영의 방향인 남쪽을 향해 앉고, 우선 조상의 영들 일반에게 타르파나를 거행한다.

옴. 불 맛을 본 자(조상의 영)들은 오라. 옴. 불 맛을 본 자들은 만족하라. 이것은 물. 그들을 향해, 스바다 나마스(svadhā namas). 옴. 소마와 관련된

32) (역주) [...] teṣām āpyāyanāyaitad dīyate salilam mayā//.

33) (역주) [...] sarve te tṛptim āyantu maddattenāmbunā sadā//PadP 1.20.160~161.

34) (역주) om OOO tṛpyatām(옴. ~는 만족하라).

된 자들은 만족하라. 이것은 물. 그들을 향해 스바다 나마스. 옴. 공물을 지닌 자들은 만족하라. 이것은 물. 그들을 향해 스바다 마나스 [...].³⁵⁾

이 경우만 ‘스바다’(svadhā)라는 호칭을 붙이는데, 이것도 조상의 영에 대한 제식의 특징이다. 여기서 새롭게 ‘소마(soma)와 관련된 자’ ‘공물을 지닌 자’라고 조상의 영들을 규정하고 그들을 위한 타르파나를 거행한다.

그리고 죽은 자의 왕 야마(Yama)를 위한 타르파나를 야마의 14의 이명(異名)을 부르면서 행한다. 우선 “옴. 야마들은 오라”라고 초대하고 “옴. 야마에게 경배”라는 만트라를 읊조린다. 그때 조상의 영들을 위한 타르파나처럼 “옴”이라고 할 때마다 물을 버린다.

야마로 시작해서 법(Dharma)의 왕, 죽음, 최후를 지닌 자, 비바스바트(Vivasvat)의 아들, 시간, 모든 살아 있는 것을 죽이는 자, 무화과 열매 색깔을 한 자, 다드나(Dadhna), 검청 색을 한 자, 최고(最高)의 장소에 서 있는 자, 이리의 배를 한 자, 치트라(Citra), 치트라굽타(Citragupta)라는 14의 다른 이름을 부르고, 최후에 “이 14사람의 야마들이 만족하여, 평안을 지니길”이라는 만트라로 마무리한다. 그는 “나의 조상들은 오라. 여기에서 한 움큼의 물을 받으라”³⁶⁾라고 읊조리면서 자기 조상의 영들을 초대한다.

옴. 오늘 바라드바자(Bhāradvāja)의 고틀라(gotra)에 속하는 아버지, 라구난다나샤르만(Raghunandanaśarman)은 만족하라. 여기에 참깨가 들어 있는 물이 있다. 그에게 스바다(svadhā), 그에게 스바다, 그에게 스바다.³⁷⁾

마지막 부분의 “그에게 스바다(svadhā)”라고 세 번 읊을 때마다 손가락의 물을 버린다. 만트라와 그 동작을 반복하면서 아버지, 아

35) (역주) om agniṣvāttādaya āgacchantu// om agniṣvāttās tṛpyantām idaṃ jalam tebhyaḥ svadhā namah/ om saumyās tṛpyantām idaṃ jalam tebhyaḥ svadhā namah/ om havismantas tṛpyantām idaṃ jalam tebhyaḥ svadhā namah/ [...] PadP 1.20.163~164에는 이런 순서로 만족시켜야 하는 7조상의 영을 열거한다. 永ノ尾 信悟(1989), 407쪽, 각주 70.

36) (역주) āgacchantu me pitara imaṃ grhantv apo 'ñjalim//.

37) (역주) om adya bhāradvājagotraḥ pitā raghunandanaśarmā tṛpyatām idaṃ satilam jalam tasmai svadhā tasmai svadhā tasmai svadhā//.

버지 쪽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 쪽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아버지 등 36명의 선조의 성과 이름을 열거하면서 타르파나를 행한다.

이어서 타르파나의 긴 제식을 마감하는 제식행위를 한다. 오른손으로 잡은 손가락의 손잡이 부분으로부터 물을 조금씩 끊어지지 않게 떨어뜨리면서 2개 만트라를 읊조린다.

브라마 신으로부터 풀에 이르기까지의 신들, 선인, 조상의 영들, 인간들은 만족하라. 모든 조상의 영들, 어머니, 어머니 쪽의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자들은.³⁸⁾

과거 일천만 가정의 일곱 대륙에 살았던 그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물을 바친다.³⁹⁾

만트라를 읊조린 다음, 수건 앞쪽에 두 번 물을 묻히고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음. 우리 가문에서 태어나, 친족에 속하는, 자식 없이 죽은 자들은 내가 옷을 짜서 만든 물을 마셔라”⁴⁰⁾라고 읊조리고 수건의 젖은 부분을 짜서 물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타르파나는 끝난다.

2.9. 태양을 공경하는 물(sūrya-arghya)

성스러운 끈을 좌측 어깨로부터 오른쪽 겨드랑이로 걸치고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왼손으로 동으로 만든 작은 용기를 잡고, 오른손으로 손가락을 잡고, 정원으로 나가서 태양을 향해 만트라를 세 번 읊조린다.

38) (역주) ābrahmastambaparyantadevarṣipitrmanāvāḥ/ tṛpyantu pitarāḥ sarve mātṛmātāmahādayaḥ// SP 3.2.5.111~112; 4.1.35.182//.

39) (역주) om atītakulakoṭinām saptadvipānīvāsīnām/ teṣām āpyānāyaitad dīyate salilam mayā// SP 4.1.35.183//.

40) (역주) om ye cāsmākam kule jātā aputrā gotrino mṛtāḥ/ te pibantu mayā dattam vastranīṣḍānodakam// SP 4.1.35.184에는 조금 다른 것이 전해진다. “우리 가문에 태어나 친족에 속하지만 자식 없이 죽은 자들은 모두 옷에서 짠 물로 만족하기를”(om ye cāsmākam kule jātā aputrā gotrino mṛtāḥ/ sarve te tṛptim āyantu vastranīṣḍānodakaiḥ//).

옴. 경배하나니. 비바스바트(Vivasvat)에게. 브라만이여. 빛을 지닌 자에게, 비슈누의 위력을 지닌 자에게, 세계를 몰아가는 자에게, 깨끗한 자에게, 사비트리에게, 행위를 주는 자에게.⁴¹⁾ 여기 공경의 물이 있다. 옴. 세 존. 성스러운 태양에게 경배하나니.

만트라라 “성스러운 태양에게 경배하나니”라는 부분을 읊을 때마다 손가락의 손잡이 쪽으로 물을 떨어뜨린다. 그런 다음 동으로 만든 용기를 베란다에 놓고 양손으로 잡은 손가락의 손잡이 쪽으로 물을 떨어뜨리고 손가락도 베란다에 올려놓는다.

2.10. 용서를 청함

태양을 공경하는 물을 바치는 예배를 마치고, 만트라 2개를 읊조리면서 삼디야우파사나의 마지막 의례행위를 한다.

옴. 바라문을 죽인 것처럼 [중대한] 어떤 죄라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돌 때마다 그것들은 파괴된다.⁴²⁾

한 차례 만트라 읊조리기, 합장하기, 오른쪽으로 돌기를 하고, 원래의 위치에 멈추어 서고 양손을 벌린 상태로 양쪽 귀로 가져가서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합장을 한다. 만트라를 세 번 읊조리면서 같은 동작을 세 번 반복한다. 다음으로 머리 앞으로 양손을 ‘야마의 뒷 무드라’ 형태로 하고 태양을 바라보며 만트라를 읊조린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를 지은 자이다. 죄의 마음을 지녀서, 죄로부터 태어났다. 연꽃의 눈을 한 분이 나를 구하기를. 모든 죄를 사해 주는 하리(Hari)신이여.⁴³⁾

41) (역주) om̐ namo vivasvate brahman bhāsvate viṣṇutejase/ jagatsavaitre śucaye savitre karmadāyine// VP 3.11.40에는 마지막 단어인 karmadāyine가 karmasākṣine(행위의 목격자에게)를 사용한 동일한 만트라가 있다.

42) (역주) om̐ yāni kāni ca pāpāni brahmahatyāsamāni ca/ tāni tāni naśyanti pradakṣiṇaṃ pade pade// Bühnemann(1988), p.174.

43) (역주) pāpo 'ham̐ pāpakarmāham̐ pāpātmā pāpasambhavaḥ/ trāhi mām̐ puṇḍarikākṣiḥ

만트라가 끝나면 머리 앞으로 양손을 모으고 왼발로 외발서기를 하며 예배한다. 이것으로 자(Jha)씨가 행하는 아침 일과인 마하데바 푸자의 전반부인 삼디야우파사나가 끝난다.

III. 슈라우타 제식문헌의 아그니호트라

베다문헌의 제식강요서 중에서, 슈라우타 제식문헌(śrautasūtra)이 전하는 아침과 저녁의 의례는 아그니호트라(agnihotra), 즉 ‘제화(祭火)에의 헌공(獻供)’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하에서 『히란야케시슈라우타수트라』(Hiranyakeśi-śrautasūtra) 제3장에 규정된 아그니호트라를 소개한다. 여기서 언급된 일부 제식행위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이하 번역에서 첫째 견해만을 소개한다. 번역 앞의 숫자는 계송 번호이고, 번역은 계송 단위로 서술하였다. 사용된 문헌은 아난다슈라마 산스크리트 시리즈(Ānandāśrama Sanskrit Series) 53의 『샤티야샤다비라치탐 슈라우타수트람』(Satyāśādhaviracitaṃ-śrautasūtram) 제1권 337~356쪽의 계송 부분이다.

1. 우리는 아그니호트라를 설명할 것이다.
2. 그것(agnihotra)을 위해 해질녘과 아침에 가르하파티야(gārhapatya, 가장의 불) 제화로부터 타오른 장작나무를 아하바니야(āhavanīya, 헌공의 불) 제화로 옮긴다.
3. 해질녘 아그니호트라는 태양이 숲의 나무에 걸렸을 때 행한다. 아침 아그니호트라는 동쪽 하늘이 밝아올 때 행한다 [...].
5. “집어서 꺼내라”라고 제주(祭主, yajamāna)에게 지시되면, 아드바르유(adhvaryu) 제관이 “그대를 말(言葉)로는 호트리 제관과 함께, 호흡(氣息)으로는 우드가트리(udgātr) 제관과 함께, 눈으로는 아드바르유(adhvaryu) 제관과 함께, 마음으로는 브라만(brahman) 제관과 함께, 귀로는 아그니드(agnīdh) 제관과 함께. 그대를 이처럼 다섯 명의 신적 제관과 함께 나는 집어 꺼낸다. 나는 죽음을 버린다. 불사와 함께 나는 놓는다. 부르, 부바, 수바. [그것을] 집어 꺼내는 동안에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거나] 알면서 행한 악행으로부터 그대는 나를 끄집어내라. 악행으로 하루 동안 죄를 행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라. 끄집어내어진 그대여”라고 읊조리면서, 그것을 해질녘에 끄집어낸다.

6. “악행으로 밤에 죄가 행해졌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라. 끄집어내어진 그대여”라고 읊조리고 아침에 끄집어낸다.

7. “불사(不死)의 현공을, 불의 신 아그니를, 불사인 대지에 봉헌하고 불사를 얻기 위하여, 그것을 통해 프라자파티(prajāpati)가 최초로 승리를 얻은 끝없는 원망(願望)을 나는 성취한다. 아그니를 아그니에게 스바하(svāhā)”라고 읊조리고, 해질녘에 [끄집어낸 장작 나무를 아하바니야 제화가] 있는 곳에 올려놓는다.

8. “태양을 아그니에게, 스바하”라고 읊조리며 아침에.

9. 태양이 진 직후 해질녘 아그니호트라를 행한다. 즉, 별이 보일 즈음, 또는 완전히 어두워진 다음에 [행한다]. 주변이 밝아질 즈음 아침 아그니호트라를 [행한다]. 즉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 또는 태양이 올라왔을 때 [행한다] [...].

11. 주변을 손으로 쓸어내서 세 번 제화를 정화한다. “아그니여. 집의 주인이여. 깨끗이 되기를”라고 읊조리고 가르하바트야 제화를 “아그니여. 옮기는 자여. 깨끗이 되기를”라고 읊조리고, 다크신아그니(dakṣināgni) 제화(조리용 제화)를. “아그니여. 왕이요. 깨끗이 되기를”라고 읊조리고 아하바니야 제화여 [...].

14. 신월·만월제(新月·滿月祭) 때처럼 풀줄기들을 3개의 제화의 주변에 놓는다 [...].

16. 제사장소(祭場) 남쪽에 젓소가 서 있다.

17. “이다(Īdā)여. 오라. 아디티(Aditi)여. 사라스바티(Sarasvatī)여. 오라. 목우여. 오라”라고 목우에 말을 걸고 “그대는 푸산(pūṣan)이다”라고 읊조리고 송아지를 젓소 가까이 가게 한다.

18. [목우를] 동쪽이나 북쪽으로 향하게 해서 수드라 이외의 [신분이] 우유를搾다 [...].

20. 우유를 담은 통에 [우유를] 짜서 단지에 옮긴다. 아니면 [현공용] 단지에 직접搾다 [...].

22. “우주적 법칙(ṛta)인 그대에게 진실을 주위에 흩뿌린다”라고 읊조리고 석양녘 [각 제화] 주변에 물을 뿌린다. “진실인 그대에게 우주적 법칙을 주위로 흩뿌리라”라고 읊조리고, 아침에 [...].

24. “그대는 제식의 계속(繼續)이다. 제식이 계속되기 위해 그대를 이끈다. 제식을 위해서. 그대를, 제식의”라고 읊조리고 가르하파티야 제화로부터 아하바니야 제화를 향해 중간이 끊어지지 않도록 물을 떨어트리며 간다.

25. “그대가 불쏘시개 장작이 되기를”이라고 읊조리고 불쏘시개 장작을 손에 들고 “사람들로부터의 위협은 우리가 미워하는 상대와 함께 굶

어내었다. 좋은 것을 위해 기대어라”라고 읊조리며 가르하파티야 제화로 부터 북쪽 방향으로 숯불(燠)을 끄집어낸다 [...].

28. “이다(Ida)의 족적(足跡)은 버터를 지니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자타 베다(Jātaveda)여. 이 공물을 만끽하라. 마을의 모든 형태의 가축들, [즉] 그 일곱 [가축들]이 여기에 기꺼이 머물기를. 영화로움이 있기를”이라고 읊조리고 아그니호트라[용 우유 단지]를 숯불 위에 얹는다.

29. [우유] 단지 입구까지 끓인 우유를 현공해야만 한다.

30. 혹은 [우유] 단지를 올려놓은 직후, “그대들은 끓어오르는 것이 되라. 나는 자손과 가축과 함께 [끓어] 오르리라”라고 읊조리고 풀에 불을 붙이고 [그것으로 비추며 우유를] 본다.

31. “그대의 열을 내가 흠어버리지 않기를”라고 읊조리고 국자로 물을 [끓어 오른 우유에] 뿌린다 [...].

35. “라크샤스(rakṣas)는 배제(排除)되었다”라고 읊조리고 타고 있는 장작을 잡고 세 번 제사 장소(祭場)를 돈다 [...].

36. “그대는 부(富)의 번영을 지닌 영험한 것이 되라. 여기에 자양을 주기를”라고 읊조리고 궤적을 그리며 단지를 불의 북쪽 방향으로 내린다.

37. “나에게 자손을 주기를”라고 읊조리고 숯불을 단 위에 놓는다.

38. “사람들로부터 위협은 우리가 미워하는 상대와 함께 물리쳤다. 좋은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읊조리고 장작을 가르하파티야 제화에 돌려놓는다.

39. “신 사비트리(Savitṛ)의 고무(鼓舞)시키는 [힘의] 원천, 아슈빈(Asvin) 쌍둥이 신의 두 어깨를 지니고 푸산(Pūṣan)의 팔을 지닌 그대를 나는 손으로 잡는다”라고 읊조리고, 국자와 아그니호트라를 현공하는 숟가락을 손에 잡고서.

40. “라크샤스(Rakṣas)는 타오른다. 아라티(Arāti)는 타오른다”라고 읊조리고 [손으로 잡은 두 숟가락을] 아하바니야 제화 또는 가르하파티야 제화에서 따뜻하게 만든다.

41. “아름다운 날개를 지니고, 아름다운 날개로부터 생겨난 그대를. 그대는 황금의 줄기를 지니고, 불사를 잎사귀를 지닌 것이 되어, 여러 제식의 흐름이 되라”라고 읊조리며 아그니호트라[의 현공용 숟가락]를 어루만진다.

42. “제주(祭主)는 잡아당겨 찢기는 경우가 없다. 부인도”라고 읊조리며, [아드바르유 제관은 국자와 현공용 숟가락] 두 개에 접촉한다.

43. “옴. 공물을 신들에게 퍼 올린다. 악행으로부터 제주를”이라고 해질녘 제주를 향해 읊조린다.

44. “옴. 공물을 신들에게 퍼 올린다. 악행으로부터 제주를”이라고 아침에.

46. “아그니를 향해 그대를, 대지를 향해 [그대를] 퍼 올린다. 바람을

향해 그대를, 허공을 향해 [그대를] 퍼 올린다. 태양을 향해 그대를, 하늘을 향해 [그대를] 퍼 올린다. 물을 향해 그대를, 풀을 향해 [그대를] 퍼 올린다”라고 읊조리고, 네 국자 정도의 [우유를 향아리로부터 현공용 숟가락에] 퍼 올린다 [...].

51. “밤에 오는 신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밤에 오는 신들은 나에게 안녕을 유지하게 하라. 나는 가축과 함께 뒤섞이고 싶다”라고 읊조리며 해질녘에 퍼 올린 우유와 향아리에 접촉시킨다. “아침에 오는 신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아침에 오는 신들은 내가 안녕을 지니게 하라. 나는 가축과 함께 뒤섞이고 싶다”라고 아침에.

52. “가축을 나에게 주기를”이라고 읊조리며 우유를 퍼 올린 장소에 퍼낸 우유를 둔다 [...].

54. 파라샤(palāśa) 나무로 만든 손가락 하나 길이의 장작 한 개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를 현공용 숟가락의 손잡이 윗부분에 포개서 잡는다.

55. “넓은 허공을 통과해 가라”라고 읊조리며 가르하파티야 제화의 불꽃에 접촉시키는 것처럼 옮겨 간다.

56. 동쪽 방향으로 향하면서 다샤호트리(Daśahotr) 만트라를 읊조린다.

57. “아그니(agni)[를 향해], 바이슈바나라(Vaiśvānara)를 향해 그대를”이라고 읊조리며 중간 부분에서 조금 밀 방향에 내려놓는다.

58. “바람을 향해 그대를”이라고 읊조리며 위로 들어올린다.

59. “나에게 [긴] 수명을 주기를”이라고 읊조리며 아하바니야 제화 서쪽에 있는 풀 위에 [그것들을] 놓는다.

60. “아그니여. 이것은 그대의 장작이 된다”라고 읊조리며 아하바니야 제화에 [숟가락과 같이 가져 온] 장작을 태운다.

62. “그대는 번개(vidyut)가 되어라. 나의 악행을 태워라(vidya). 우주적 법칙(rta)에게, [그리고] 진실에게 나는 향해간다. 나에게는 믿는 마음이 있다”라고 읊조리며 물에 접촉한다.

63. [장작이 타서] 검게 되었을 때, 탄 [장작] 부분에 현공한다.

67. “호트리 제관과 함께, 부르, 부바, 수바. 아그니는 광휘. 광휘는 아그니. 스바하”라고 해질녘 [현공 때에 읊조린다]. “호트리 제관과 함께, 부르, 부바, 수바. 아그니는 광휘. 광휘는 아그니. 스바하”라고 아침에.

70. “활기를 나에게 주기를”이라고 읊조리며 [현공용 숟가락을] 풀 위에 다시 올려놓는다.

71. [현공용 숟가락에] 남은 것을 손으로 닦아내서 “풀을 위하여 그대를. 풀에게 원기(元氣)를 주라”라고 읊조리며, 남은 것을 주위에 깔려있는 풀 북쪽 부분에 문질러 바른다.

72. “아그니여. 가정의 주인(grhapati)이여.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기를. 자신 가운데에 우주적 법칙(rta)이 놓여졌다. 자손과 광휘를 나는 얻고자 한다”라고 읊조리며 가르하파티야 제화를 들여다본다.

73. [처음의 현공 장소를] 떠나서 만트라를 읊조리지 않으면서 장작에 걸치는 것처럼 하고, 다음에 한 번 많은 양을 현공한다.

79. “활기를 위해 그대를”이라고 읊조리며 해질녘 [현공용 손가락에] 남은 것을 아래쪽으로 천천히 닦아 낸다.

80. “자양을 위해 그대를”라고 읊조리며 아침 [방향], 즉 위쪽 방향으로 천천히 닦아 낸다.

84. [두 번 현공할 분량]보다 많은 양의 우유를 마시기 위해 남겨둔다.

85. 현공한 다음 [무엇인가] 위대한 것, [즉, 길조인 것]을 본다.

86. “루드라(Rudra)여. 유화(柔和)하게 되라. 아나르바파(Anārbhava)여. 유화하게 되라. 두르타(Dhūrta)여. 유화하게 되라. 그대에 경배하나니. 가축의 주인이여. 나를 상처 입히는 일이 없기를”이라고 읊조리며 세 번 북쪽을 향해 [현공용] 손가락을 [아하바니야] 제화의 위로 옮긴다.

87. 손가락을 밑으로 하여 남은 우유를 손으로 닦는다.

88. “조상의 영들을 위해 그대를. 조상의 영들에 원기(元氣)를 주라”라고 읊조리고, 남은 것을 지면 위에 남쪽 방향으로 문질러 바른다.

89. 물에 접촉하고서.

90. “그대는 푸산(Pūṣan)이 되라”라고 읊조리고 [우유를] 두 번째 손가락에 발라서 마시고 [물로 입을] 닦고 다시 [손가락에 발라서] 마신다.

91. 현공용 손가락과 풀줄기(數本)를 손에 잡고 북쪽을 향해 걸어간다.

92. “아그니에게 바쳐진 정액(淨液)을 내가 취해서 탄생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라. 열 명의 용사(勇者)와 함께, 모든 나그네와 함께, 안녕을 위하여. 스스로를 얻는 자, 자손을 얻는 자, 가축을 얻는 자,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지닌 자, 세계를 얻은 자, 비를 얻은 자. 아그니는 나의 자손을 늘리라. 그대는 음식, 우유, 정액을 우리에게 주라. 부의 번영을, 활력을, 자양을, 우리 가운데에 그대가 보존하기를”라고 읊조리며 손잡이를 동쪽으로 향하던지, 북쪽으로 해서 현공용 손가락으로 두 번 우유를 훌쩍 훌쩍 마신다. 그리고 두 번 훑는다.

94. “태양에 바쳐진 정액을 내가 취해서 탄생을 가져오는 자가 되라”라고 읊조리고 아침에.

95. 현공용 손가락에 물을 채워서 “뱀들을 위해서 그대를. 뱀들에게 원기(元氣)를 주라”라고 읊조리며 흘린다.

96. 물로 입을 닦는다.

97. 현공용 손가락을 풀줄기로 닦아 낸다.

98. [그것에 물을] 채워서 “뱀들을, 개미들에게 원기를 주라”라고 읊조리며 물을 위로 향해 흘뿌린다.

99. “뱀신의 무리에게 원기(元氣)를 주라”라고 읊조리며 두 번째를 [흘뿌린다]. “모든 존재자를 위해 그대를”라고 읊조리며 세 번째를 [흘뿌린다]. “위대한 신(Mahādeva)을 위해서”라고 읊조리며 네 번째를 [흘뿌린다].

100. 현공용 손가락에 물을 채우고 “나는 불사를 대지에 현공한다. 스바하”라고 읊조리며 아하바니야 제화 서쪽이나 가르하파티야 제화 서쪽으로 흘린다.

101. “가정을 위해 그대를. 가정을 만족시켜라”라고 읊조리며 물의 일부를 부인의 손바닥에 흘린다.

103. 손을 따뜻하게 해서 현공용 손가락에 올린다. 혹은 현공용 손가락을 따뜻하게 해서 손에 올린다. “7인의 선인(仙人)을 위해 그대를. 7인의 선인에게 원기를 주라”라고 하며 현공용 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킨다.

104. 현공용 손가락을 밑에 놓고 돌아 와서, 국자를 사용하여 가르하파티야 제화와 다크신아그니 제화에 우유를 현공한다. 현공할 때마다 장작을 태운다.

105. “번영의 주(主)는 나에게 번영을 주기를. 그대는 부의 번영을, 활기를, 자양을 우리 가운데에 보존하는 것처럼.” “아그니에게. 집의 주(主)에게. 가족의 주에게. 번영의 주에게. 원망(願望)에게. 먹는 것에. 스바하”라고 읊조리며 두 번 가르하파티야 제화에 현공한다.

106. “먹는 것의 주여. 우리에게 먹는 것을 주기를”라고 읊조리며 두 번 다크신아그니 제화에게.

107. “아그니여. 그대는 자신의 신체를 만족시켰다. 그대는 하늘과 땅에게 제사 지냈다. 자양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읊조리며 풀 위에 있는 향아리의 우유를 묻혀서 아하바니야 제화에 뿌린다. 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110. “하늘과 땅을 위하여 그대를. 하늘과 땅에 원기(元氣)를 주기를”라고 읊조리며 제단(vedi) 안에 행군 물을 흘린다.

111. 이전처럼 [각 제화의] 주위에 물을 뿌린다.

112. “그대는 빛나라. 나는 빛나고 싶다. 그대는 나를 빛내는 자가 되라”⁴⁴⁾라고 읊조리며 불타오르게 한다.

44) 이 만트라에 대해서 Narten(1987), pp.159~160을 참조하라.

<p>I. 준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르하파티야 제화로부터 아하바니야 제화에 불씨를 옮긴다(2-8). 2. 3개 제화의 청소와 치가야(풀줄기)로 주위에 물을 뿌린다(11-14). 3. 현공용 우유를 짠다(16-20). 4. 3개 제화 주위에 물을 뿌림으로써, 가르하파티야 제화와 아하바니야 제화를 물로 연결한다(22-24). 5. 가르하파티야 제화에서 꺼낸 숯불에 우유를 뿌려 태운다(25-38).
<p>II. 현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두 종류의 손가락을 손에 잡고 따뜻하게 하고 어루만진다(39-41). 7. 국자에서 끓인 우유를 현공용 손가락에 옮긴다(42-52). 8. 장작과 현공용 손가락을 잡고 가르하파티야 제화로부터 아하바니야 제화로 옮긴다(53-59). 9. 장작을 태운다(60-62). 10. 첫 번째 현공을 한다(63-70). 11. 남은 우유를 북쪽 방향에 있는 풀줄기에 바른다(71). 12. 가르하파티야 제화를 본다(72). 13. 두 번째 현공을 한다(73). 14. 현공용 손가락을 닦는다(79-85).
<p>III. 현공 후 행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5. 루드라 신을 달랜다(86). 16. 조상의 영들에 원기를 준다(87-89). 17. 우유를 마신다(90-94). 18. 뱀들에게 원기를 준다(95-97). 19. 뱀들, 개미들에게 원기를 준다(98). 20. 뱀신의 무리에게 원기를 주고 모든 존재자, 그리고 마하데바(쉬바신)에게 물을 뿌린다(99). 21. 대지를 향해 물을 뿌린다(100). 22. 집을 만족시킨다(101). 23. 7인의 선인(仙人)에게 원기를 준다(103). 24. 가르하파티야 제화와 다크신아그니 제화에 현공한다(104-106). 25. 우유를 물인 풀을 아하바니야 제화에 던진다(107). 26. 하늘과 땅에 원기를 준다(110). 27. 제화의 주위에 물을 뿌리고 불타오르게 한다(111-112).

[표 1] 『샤트야사다비라치탐 슈라우타수트람』이 전하는 아그니호라

이상이 『샤트야샤다비라치탐 슈라우타수트람』이 규정한 아그니호트라이다.⁴⁵⁾ [표 1]에서 보듯 제식행위는 크게 셋으로 구분된다. 제Ⅰ부는 가장이 언제나 갖고 다니는 가르하파티야(gārhapatya) 제화, 즉 ‘가장의 제화’에서 아하바니야 제화(현공용 제화)에 불씨를 옮기고, 현공용 우유를 짜고, 우유를 가르하파티야 제화에서 꺼낸 숯불로 끓이는 제식행위로 시작한다. 제Ⅱ부는 현공용 숟가락에 우유를 옮기고, 아하바니야 제화에 장작을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그곳에 두 번 현공을 바치는 핵심적 부분이다. 제Ⅲ부는 현공 이후의 제식행위로서 루드라 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신격 및 다양한 존재들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그니호트라의 의례적 의미를 해설하는 브라마나(brāhmana) 문헌군이 바이슈바데마(vaiśvadeva, 모든 신에 대한 [예배]행위)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다.

해질녘과 아침의 아그니호트라에서 만트라 일부가 바뀌지만, 한 쪽 제식에서 사용되는 만트라만 길고 짧은 것을 포함하여 50개 이상이다. 따라서 얼핏 보면 이 아그니호트라가 복잡한 제식처럼 보이지만, 슈라우타 제식문헌이 규정한 것 중에서 단순한 편에 속한다.

슈라우타 제식문헌이 전하는 제식은 언제나 특정 제주를 위해 다수의 전문 제관들이 거행한다. 그래서 이 아그니호트라도 제주를 위해 아드바르요(adhvaryu) 제관이 제식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제관이 읊조리는 만트라 중, 28개 만트라가 ‘나’(1인칭 단수)가 주어이고, 4개가 ‘우리’(1인칭 복수)가 주어이다. 따라서 약 3분의 2에 가까운 만트라가 ‘나’ 또는 ‘우리’와 관련된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이 원망(願望)을 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사의 획득, 악행과 죄의 제거, 적의 타도, 자손과 가축, 먹는 것과 부의 획득 등은 제주가 얻게 될 것을 청하는 다양한 원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관이 1인칭으로 청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45) Dumont(1939)는 제8권에서 슈라우타 제식문헌에 기초한 아그니호트라를 상세하게 소개한다. Bodewitz(1973)는 『자이미니야 브라마나』(Jaiminīya-brāhmana)의 아그니호트라 장의 번역하여 소개하였고, Bodewitz(1976)는 10개 브라마나 문헌들을 근거로 아그니호트라를 해석하였다.

다른 슈라우타 제식문헌들의 규정에도 제관이 1인칭으로 만트라를 읊조리는 경우가 있지만, 만트라 대부분이 제관이 행하는 구체적 행위를 지시하는 것이기에 문맥상 자연스럽다. 위의 아그니호트라 규정에서 실례를 찾는다면, 22송, 24송, 39송 등에 사용된 만트라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통상 슈라우타 제식에서는 ‘제주의 의무’ 혹은 ‘제주’라는 언급이 있거나, 제주 자신이 받게 될 원망을 스스로 청하는 만트라 등이 열거된다.

따라서 아드바르유 제관이 1인칭으로 읊조리는 만트라 가운데 원망을 청하는 것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이 아그니호트라의 고유 특징이다. 제식행위 자체가 단순할 뿐만 아니라, 1인칭으로 원망을 청하는 만트라를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들을 고려할 때, 이 아그니호트라는 본래 어떤 개인이 다른 제관에게 의뢰한 것이라기 보다, 가장 자신이 스스로 행한 제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이 아그니호트라의 목적을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식의 핵심은 끓인 우유를 해질녘에 “아그니는 광휘. 광휘는 아그니”라는 만트라와 함께, 아침에 “태양은 광휘. 광휘는 태양”이라는 만트라와 함께 제화에 뿌리는 것이다. 이 현공의 시점은 거의 일몰 또는 일출 때이다. 그리고 광휘라는 개념을 매개로 지상의 불인 아그니(祭火)와 하늘의 불인 태양(太陽)이 연결된다.

공물인 우유는 불에 연소되면서 ‘불 =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吸收)한다. 그리고 끓인 우유를 ‘제화(祭火) = 태양’에게 현공함으로써 일몰, 즉 광휘를 잃고 기울어가며 어둠의 세계를 통과하는 태양에게 활기(活氣)를 줄 수 있다. 한편 같은 방식(제화에 우유를 현공하는 것)을 통해 일출, 즉 광휘를 대지에 내뿜으며 떠오르는 태양이 원기를 갖도록 만든다는 태양활성화 의례가 첫째 목적이다.⁴⁶⁾

한편 가르하파티야 제화에서 불씨를 꺼내서 아하바니야 제화에 옮기기, 3개 제화를 준비하기, 가르하파티야와 아하바니야 제화를 물로 연결하기, 현공 직전에 아하바니야 제화의 장작을 불타오르게 하기, 현공 후 우유를 문헌 풀을 그곳에 던지기 등의 제식행위가

46) Cf. Bodewitz(1976), p.197.

규정된다. 제화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제화에 공물을 헌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슈라우타 제식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모든 제식행위가 끝나고, “그대는 빛내라. 나는 빛나고 싶다. 그대는 나를 빛나게 하는 자가 되라”라고 읊조리면서, 제화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행위(112송)는 이 아그니호트라 고유의 특징이다.

아마도 그들은 사용되지 않는 낮 혹은 밤중에도 불을 유지해야만 하는 가르하파티야 제화 속에 불씨를 보존했을 것이다. 그렇게 불씨를 밤에 한 번 쭉서 지퍼서 밤에 사용할 준비를 하고, 아침에 다시 불타오르게 해서, 아침용으로 사용할 준비를 한 것이다. 이처럼 불씨의 유지와 돌봄이라는 일상행위를 의례화하는 것이 이 아그니호트라의 둘째 목적이다.⁴⁷⁾

셋째 목적으로 추정되는 것은 헌공 후에 거행되는 다양한 존재에 대한 예배가 지닌 의미이다. 첫째 헌공 후, 남은 우유를 아하바니야 제화 북쪽에 놓여 있는 풀에 묻히고 “풀을 위해서 그대를. 풀에 원기를 주기를”이란 만트라를 읊조린다. 만트라의 형식이 다르기도 하고, 헌공되는 공물로 남은 우유로 하거나 물을 사용하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둘째 헌공 후에 루드라 신(86송), 조상의 영들(87~89송), 뱀들(95~97송), 뱀들과 개미들(98송), 뱀신 무리, 모든 존재자, 위대한 신(99송), 대지(100송), 집(101송), 7선인(103송), 그리고 하늘과 땅(110송) 등의 다양한 신격과 여러 존재에게 원기를 주거나 만족시키거나 달래는 예배를 한다. 하루의 두 시점이 만나는 해질녘과 아침에 인간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신격을 예배하는 것이 이 아그니호트라의 셋째 목적이다.

처음의 세 대상, 즉 풀, 루드라 신, 조상의 영들을 위한 공물은 헌공용으로 쓰고 남은 우유를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헌공용 공물로서 사용된 우유이지만 90~94송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제관은 만트라 몇 개를 읊조리고 그것을 조금 마신다. 이 제식행위와 관련해서 우선 연상되는 것은 모든 슈라우타 제식에서 공물을 헌공한 다음 제관들과 제주가 공물의 일부를 먹는 것이다. 그러나 억지처럼 느

47) Cf. Oldenberg(1970), pp.437f.

꺼지지만, 필자는 이 경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싶다. 즉, 공물로 사용하고 남은 우유를 마시는 행위는 공물의 일부를 먹는 것보다 식사 자체는 아니더라도 식사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 아그니호트라 의 셋째 목적으로 언급한 일련의 행위는 제식의 해석문헌 시대 이후, 바이슈바데바(viaśvadeva)라고 불렸다. 따라서 아그니호트라 헌공 후에 거행한 이 제식행위가 이후 바이슈바데바라고 불렸으며, 식사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 장에서 언급하겠다.

그리고 가정 제식문헌(grhyasūtra)이 규정하는 아침 의례 가운데 둘째 부분도 일반적으로 ‘바이슈바데바’라고 불린다. 아래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 제식문헌이 규정하는 바이슈바데바 예배는 분명하게 식사와 관계를 갖는다. ‘바이슈바데바’라는 명칭의 유래와 식사와 관계성이라는 두 사실을 매개로 아그니호트라에서 행한 바이슈바데바 예배와 아침의례의 한 부분으로 가정 제식문헌이 규정하는 바이슈바데바 예배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가정 제식문헌의 아침과 저녁 헌공과 바이슈바데바

베다제식을 규정하는 수트라 문헌 중에는, 앞 장에서 소개한 아그니호트라를 규정하는 슈라우타 제식문헌(śrautasūtra)에 이어지는 것으로 가정 제식문헌(grhyasūtra)이 있다. 가정 제식문헌이 주로 언급하는 주제는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생애의 단계들에서 행하는 일련의 인생의례와 일부 계절의례이다. 즉, 이것은 결혼의례를 통해 새롭게 가족을 꾸린 가정이 때에 맞춰 행하는 일련의 가정 제식행위를 규정한다. 이 장에서 언급할 아침과 저녁 헌공과 바이슈바데바 예배도 가정의 의무로 규정된 많은 의례 중 하나이다.

우선 아침과 저녁 헌공을 소개한다. 이것은 전술한 아그니호트라에 비해 매우 단순하다. 그 아그니호트라를 전하고 문헌과 같은 학파의 『히란야케시 그리히야수트라』(Hiranyakeśi-grhyasūtra) 1.7.20~21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⁴⁸⁾

20. 언제나 해질녘과 아침에 쌀 또는 보리를 가지고 손으로 두 헌공을 행한다. “아그니를 향하여, 스바하. 프라자파티를 향하여, 스바하”라고 읊조린다.

21. 아침에 처음 태양에 대한 헌공을 한다고 어떤 사람들이 전한다.

[표 2]에 열거된 것처럼 다른 가정 제식문헌들이 전하는 아침과 저녁 헌공도 비슷하다. 21송에서 “어떤 사람들”의 견해라는 “아침에 처음 태양에 대한 헌공을 한다”라는 것은 아침에는 “태양을 향하여, 스바하. 프라자파티를 향하여, 스바하”라는 만트라를 사용하고, 해질녘에만 20송의 만트라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가정 제식문헌이 규정하는 아침과 저녁 헌공은 슈라우타 제식문헌이 언급한 아그니호트라의 핵심적 제식행위만을 뽑아낸 것으로 만트라도 매우 단순하다. 앞장에서 소개한 『샤트야사다비라치탐 슈라우타수트라』 제3장 67송과 73송에서 아그니호트라의 핵심 헌공이 언급되었다. 67송의 첫 번째 헌공에 사용된 만트라는 해질녘에 사용하는 것으로 “호트리 제관과 함께 부르, 부바, 수바. 아그니는 광휘. 광휘는 아그니. 스바하(svāhā)”이고, 아침에 사용하는 것은 “호트리 제관과 함께. 부르, 부바, 수바. 아그니는 광휘. 광휘는 아그니. 스바하”이다.

첫 번째 헌공에서 해질녘에 실제 불이면서 불의 신이기도 한 아그니에 대한 만트라가, 아침에 태양을 향한 만트라가 중심이다. 73송은 만트라를 읊조리지 않고 헌공한다고 하지만, 다른 문헌에서는 이때 유정(生類)의 주(主) 프라자파티를 중심으로 한 만트라를 마음속으로 읊조린다.⁴⁹⁾ 즉, 아그니호트라의 핵심 헌공을 해질녘에는 아그니와 프라자파티에게 하고, 아침에는 태양과 프라자파티에게 바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그니호트라의 핵심 헌공이 각각 해질녘

48) 앞 장에서 사용한 슈라우타수트라와 같은 시리지인 Ānandāśrama Sanskrit Series 제53권의 *Satyāśādhaviracitam Śrasutasūtram* 제8권의 584~585쪽을 참조했다.

49) Cf. Caland(1921), p.190; Bodewitz(1976), p.98.

과 아침의 두 기둥과 같은 신들에게 거행된다. 그리고 가장이 가정 제식을 위한 제화에 손으로 쌀 혹은 보리를 헌공하는 형태가 가정 제식문헌이 규정하는 아침과 저녁 헌공이다.

1. <i>Baudhāyana-gr̥hyasūtra</i>	2.6.17~22(베다학습의 졸업식 다음)
2. <i>Bhāradvāja-gr̥hyasūtra</i>	1.18[19.2~4](결혼의례의 일환)
3. <i>Bhāradvāja-gr̥hyasūtra</i>	3.3[70.15~18](가정 제식용 제화 설치식 다음)
4. <i>Āpastamba-gr̥hyasūtra</i>	3.7.19~22(결혼의례의 일환)
5. <i>Hiraṇyakeśi-gr̥hyasūtra</i>	1.7.20~21(결혼의례의 일환)
6. <i>Vaikhanasa-gr̥hyasūtra</i>	3.6[40.1~3](결혼의례의 일환)
7. <i>Āgniveśya-gr̥hyasūtra</i>	1.6[39.9~18](결혼의례의 일환)
8. <i>Kāṭhaka-gr̥hyasūtra</i>	53.1.(슈라가바(śūlagava) 제사 다음)
9. <i>Mānava-gr̥hyasūtra</i>	2.3.1~2(스타리파카(sthalipaka) 규정 다음)
10. <i>Vārāha-gr̥hyasūtra</i>	(언급이 없다)
11. <i>Paraskara-gr̥hyasūtra</i>	1.9.1~4(결혼의례의 일환)
12. <i>Āśvalayana-gr̥hyasūtra</i>	1.9.1~4(결혼의례의 일환)
13. <i>Sāṅkhyana-gr̥hyasūtra</i>	1.3.8~17(머리말의 일반규정 가운데)
14. <i>Gobhila-gr̥hyasūtra</i>	1.1.23~28(머리말의 일반규정 가운데)
15. <i>Drahyayana-gr̥hyasūtra</i>	1.5.6~17(결혼의례의 일환)
16. <i>Jaiminiya-gr̥hyasūtra</i>	1.23[24: 3~4](결혼의례의 일환)
17. <i>Kauśika-sūtra</i>	73.1~3(아그니호트라 다음)
Bodewitz(1976: 2月)	高橋(1991(80)-(81)을 참조)

[표 2] 아침과 저녁 헌공을 언급하는 그리히야수트라

가장의 아침과 저녁 의무에는 전술된 가정 제식문헌의 규정, 즉 아침과 저녁 헌공이외에, 후술될 바이슈바데바 예배가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현존하는 가정 제식문헌은 모두 이것을 언급한다. 그런데 『히란야케시 그리히야수트라』(*Hiraṇyakeśi-gr̥hyasūtra*)가 1.2.40~44에서 바이슈바데바 예배를 규정하지만, 그것은 결혼 전의 베다학생이 행하는 의례이다. 이 의례행위를 가장의 의무로서 규정하는 것은 『히란야케시 그리히야수트라』가 아니라 『히란야케시 다르마스utra』(*Hiraṇyakeśi-dharmasūtra*) 2.1.32~62이다. 즉, 『아파스탐바 다르마스utra』(*Āpastamba-dharmasūtra*) 2.2.3.1~4.9와 거의 같은 규정이 그곳에서 발견된다. 우선 『히란야케시 다르마스utra』 2.1.32~62이 규

정한 바이슈바데바 예배를 소개한다. 사용된 문헌은 동일하게 아난 다슈라마 산스크리트 시리즈 53의 제10권 135~139쪽이다.

32. 바이슈바데바 예배를 [거행할] 경우는, 상위 세 바루나(varuṇa,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 몸을 정화하고 음식을 조리해야만 한다.
33. 잡담, 제치기, 콧물 등은 음식으로부터 멀리해야 한다.
34.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 땀, 옷을 접촉했으면 물에 접촉해야 한다.
35. 상위 세 바루나에 속한 자가 감독하면, 수드라가 조리할 수 있다.
36. 그(수드라)들이 [몸을 정화하려면] 입을 닦는 방법밖에 없다.
37. [수드라가 조리를 할 경우 그는] 언제나 매일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손톱을 잘라야만 한다.
38. [요리사 수드라는 언제나] 의복을 걸치고 물에 들어가야만 한다.
39. 때로 [반달이 뜨는] 제8일 또는 초하루와 보름에 털을 깎고 손톱을 잘라야만 한다.
40.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리된 음식은 불에 올리고 물을 뿌려야만 한다. 그것을 정화의 수단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41. 음식이 완성되면, 서 있는 상태로 “다 되었습니다”라고 주인에게 보고한다.
42. [주인은] “그것 잘되었네”라고 응답한다.
43. 가정 제식을 행하는 자로서 먹어야만 하는 것의 일부를 제화에 현공한다. 그러면 발리(bali)로서 주어진 것이 천계와 [그 세계에서]의 번영과 연결된다.
44. 그것을 [처음] 행하는 경우에는 12일간 금욕생활을 하고, 땅바닥에 눕고, 잿물(灰汁), 소금, 꿀, 고기 등은 멀리해야만 한다.
45. 마지막 날 밤은 하룻저녁 단식하며 지내야만 한다.
46. 발리 현공을 행하는 각 장소의 정화는 손으로 주위를 닦고 물을 뿌리고 공물을 놓고 나서, 주위에 물을 흩뿌리는 것이다.
47. 가정 제식용 제화 또는 조리용의 제화에서 앞에서부터 6개 만트라를 읊조리고 그때마다 손으로 이것들을 현공한다[“아그니를 향해서, 스바하. 일체의 신들을 향하여, 스바하. 확고한 대지를 향하여 스바하. 확고한 거주처를 향해, 스바하. 흔들리지 않는 거주처를 향하여 스바하. 아그니 스비슈타크리티(Agni Sviṣṭakṛti)를 향하여 스바하”].
48. 이 [현공]처럼 몇 개의 발리 현공을 모아서 한 장소에서 거행할 경우, 각 장소에서 [일부 현공] 이후에 주위에 물을 흩뿌려야만 한다.
49. [발리 현공에] 국물을 사용할 경우 [쌀과 국물을] 섞어서 [현공]해야만 한다.
50. 불의 서쪽 방향에서 7째와 8째 만트라를 읊조리고 북쪽 방향으로

[발리 현공을 거행해야만 한다] [“다르마를 향하여, 스바하. 아다르마를 향하여, 스바하”].

51. 물을 담은 작은 그릇 가까이에서 9째 만트라를 읊조린다[“물을 향하여, 스바하”].

52. 방 한 가운데에서 10째와 11째 만트라를 읊조리고 서쪽을 향한다 [“풀과 나무를 향하여, 스바하. 라크샤스와 신들의 무리를 향하여, 스바하”].

53. 방의 북동(北東)쪽 장소에서 계속해서 4개 만트라를 읊조린다[“집에 속한 것들을 향하여, 스바하. 머무는 것들을 향하여, 스바하. 머무는 것의 주들을 향하여 스바하. 모든 존재자들을 향하여 스바하”].

54. 침상(寢床)이 있는 곳에서 카마(Kāma)를 향해 만트라를 읊조린다 [“카마를 향하여, 스바하”].

55. 문지방이 있는 곳에서 허공을 향해 만트라를 읊조린다[“허공을 향하여, 스바하”].

56. [“이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 활동하는 것, 그것의 이름은 바가(Bhāga). 그 이름을 향해, 스바하”]라는 만트라를 읊조리고 문짝이 있는 곳에서.

57. 이어서 몇 개 만트라를 읊조리고 브라만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대지를 향하여, 스바하. 허공을 향하여, 스바하. 하늘을 향하여, 스바하. 태양을 향하여, 스바하. 달을 향하여, 스바하. 별들을 향하여, 스바하. 인드라를 향하여, 스바하. 브리하스파티를 향하여, 스바하. 브라만을 향하여, 스바하”].

58. [브라만의 자리] 남쪽에서 조상의 영들에게 만트라를 읊조리고 성스러운 끈을 오른쪽 어깨로부터 왼쪽 겨드랑이로 걸치고 손바닥을 밑으로 하고 바쳐야만 한다[“스바다(svadhā), 조상의 영들을 향하여. 신들을 향하여, 스바하”].

59. 모든 신격을 향하는 것처럼 해서 [즉, 성스러운 끈을 왼쪽 어깨로부터 오른쪽 겨드랑이로 걸치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루드라를 향한 발리 현공을 [브라만의 자리] 북쪽에서 [거행한다] [“경배하여라. 루드라를 향하여, 가족의 주(主)를 향하여, 스바하”].

60. 두(조상의 영과 루드라를 향한 발리 현공) 경우 각각의 [현공 장소] 주변에 물을 흠뿌린다. 그 거행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61. 밤의 경우에 마지막 만트라를 읊조리고 허공을 향해 [발리 현공을 거행해야 한다] [“비투다(Vituda)의 자신의 집에서 낮과 밤, 발리를 원하면서 떠도는 모든 존재, 그것들을 향하여, 번영을 희망하는 나는 발리 현공을 거행한다. 나에게 번영을, 번영의 주가 주기를. 스바하”].

62. 이것들[의 제화에 대한 현공과 발리 현공]을 마음 모아 행하는 자는 언제나 천계와 [이 세계에서] 번영을 누린다.

- | | |
|--|------------------------------|
| 1. <i>Baudhāyana-gr̥hyasūtra</i> | 2.8 |
| (가족의 주(主) 슈바신에게 소를 헌공(śūlagava)한 다음) | |
| 2. <i>Bhāradvāja-gr̥hyasūtra</i> | 3.12~14[78.13~83.4](문헌의 끝부분) |
| 3. <i>Āpastamba-gr̥hyasūtra</i> | 3.7.26 |
| (결혼의례의 일환으로, 아침과 저녁 헌공 직후, 단지 언급만) | |
| [<i>Āpastamba-dharmasūtra</i> | 2.2.3.1~4.9(가장의 의무 가운데)] |
| 4. <i>Hiraṇyakeśi-gr̥hyasūtra</i> | 1.2.40~44(베다학생의 의무 중 하나) |
| [<i>Hiraṇyakeśi-dharmasūtra</i> | 2.1.32~62(가장의 의무 가운데)] |
| 5. <i>Vaikhanasa-gr̥hyasūtra</i> | 3.7[40.9~41.15] |
| (결혼의례의 일환으로, 아침과 저녁 헌공에 이어서) | |
| 6. <i>Āgriveśya-gr̥hyasūtra</i> | 1.7.2[41.14~42.6] |
| (결혼의례의 일환으로, 아침과 저녁 헌공 가까이) | |
| 7. <i>Āgriveśya-gr̥hyasūtra</i> | 2.6.4~5 |
| (일상의 의무 가운데, 가정 제식문헌의 보조문헌 차원) | |
| 8. <i>Kaṭhaka-gr̥hyasūtra</i> | 54.1~20 |
| (52: śūlagava; 53: 아침과 저녁 헌공, 신원·만월제, 추수감사제) | |
| 9. <i>Manava-gr̥hyasūtra</i> | 2.12.1~20 |
| (2.11: 집짓기 위한 제식; 2.14: 부와 원망을 청하는 것(śaṣṭhikalpa)) | |
| 10. <i>Varaha-gr̥hyasūtra</i> | 17(문헌의 끝부분) |
| 11. <i>Paraskara-gr̥hyasūtra</i> | 2.9.2~10(졸업식 목록 다음) |
| 12. <i>Āśvalayana-gr̥hyasūtra</i> | 1.2.1~11(머리말의 일반규정 가운데) |
| 13. <i>Sāṅkhyāna-gr̥hyasūtra</i> | 2.14.1~18 |
| (입학식과 베다학습 졸업식 사이에) | |
| 14. <i>Gobhila-gr̥hyasūtra</i> | 1.4.1~30(머리말의 일반규정 가운데) |
| 15. <i>Drahyayana-gr̥hyasūtra</i> | 1.5.18~37(아침과 저녁 헌공 다음) |
| 16. <i>Jaiminiya-gr̥hyasūtra</i> | 1.23[24: 4~15](아침과 저녁 헌공 다음) |
| 17. <i>Kauśika-sūtra</i> | 73.13~74.12(아침과 저녁 헌공 가까이) |

Bodewitz(1976), p.201, 高橋 明(1991, pp.81~82)

[표 3] 바이슈바데바(vaiśvadeva) 제식을 언급하는 그리히야수트라

『히란야케시 다르마수트라』의 규정은 둘로 구분된다. 32송부터 45송 부분은 서설(序說)이다. 이것은 바이슈바데바 예배의 공물로 사용되는 음식을 요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만일 요리사가 수드라일 경우 행하는 정화 방법, 그리고 바이슈바데바 예배를 처음 거행하는 사람을 위한 예비적 의례행위를 언급한다. 이어서 46~62송은 실제 제식을 거행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앞에서 아그니호트라를 행할 때, 중심 헌공 후에 다양한 대상을 위한 일련의 예배가 행해졌고, 그 예배들을 총칭하여 ‘바이슈바데

바'라고 하였다. 그리고 음식 일부를 그들에게 바치는 것으로 제식 행위가 해석된다는 것을 이미 밝혔다. 그런데 가정 제식문헌과 다르마수트라(제식문헌 이후의 해설서)의 제식 규정도 그것을 '바이슈바데바'라고 부른다. 그렇게 명칭이 동일한 아그니호트라(의 바이슈바데바 의례와 식사의 관련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한편 가정 제식문헌과 다르마수트라(의 모든 문헌은 바이슈바데바 예배에서 음식 일부를 공물로써 헌공하는 제식행위를 명시한다. 예배 대상인 신격과 존재들에 대한 규정은 아래에서 언급할 것이다. [표 4]는 아그니호트라에서 바이슈바데바 예배를 행하는 장소와 대상을 정리하고, [표 5]의 () 가운데 있는 숫자는 아그니호트라(의 바이슈바데바 예배에 대한 항목 번호이다.

그것에 따르면 아그니호트라에서 일곱째로 행하는 7선인에 대한 예배가 가정 제식문헌과 다르마수트라 시대에는 없었다. 또한 넷째로 예배되는 뱀과 개미도 빠져있다. 예배를 행하는 장소도, 아그니호트라가 아하바니아(āhavanīya) 등의 제화를 중심으로 거행되는 반면, 후자는 가정의 집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7선인과 뱀과 개미 이외의 대상은 가정 제식문헌과 다르마수트라(의 바이슈바데바 예배에도 발견된다. 두 표를 통해 추정되는 것은 제식행위에 큰 차이는 있지만 가정 제식문헌과 다르마수트라(의 바이슈바데바 예배는 아그니호트라(의 바이슈바데바 예배가 널리 퍼지면서 변용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생겼다는 것이다.⁵⁰⁾

50) Bodewitz(1976: p.196)는 두 개의 바이슈바데바(Vaiśvadeva) 사이를 피상적인 관계로 밖에 보지 않는다.

1. 현공용 제화(ahavaniya)의 북쪽 풀	풀
2. 아하바니아의 위를 북쪽 방향으로	루드라
3. 아하바니아의 남쪽 장소	조상의 영들
4. 아하바니아의 북쪽 장소	뱀들, 뱀들과 개미들, 뱀신의 주인, 존재자, 위대한 신
5. 아하바니아 또는 가정의 제화 서쪽	대지
6. 부인의 손바닥	가정
7. 북쪽을 향하여	7선인(仙人)
8. 제단(vedi)	하늘과 땅

[표 4] 아그니호트라의 바이슈바데바의 장소와 대상

1. 제화	아그니, 일체의 신들, 확고한 대지, 확고한 주처, 흔들리지 않는 거주처, Agni Sviṣṭakṛt(5)
2. 제화의 서쪽 방향	다르마(dharma)와 아다르마(adharma)
3. 물 그릇 가까이	물
4. 방의 중앙	풀과 나무, 라크샤스와 신들의 주인(1)
5. 방의 북쪽 구석	집에 속하는 자들, 머무는 것, 머무는 것의 주인들, 모든 존재자(4) (6)
6. 침상	카마(kama)
7. 문지방	허공
8. 문	바가(Bhaga)
9. 브라만의 자리	대지, 허공, 하늘, 태양, 달, 성신, 인드라, 브리하스파티, 프라자파티, 브라만(5) (8)
10. 브라만의 자리 남쪽	조상의 영들, 신들(3)
11. 브라만의 자리 북쪽	루드라(2)
12. 공중	모든 존재(4)

(주) ()안의 숫자는 [표 4]의 각 항목의 번호를 표시한다.

[표 5] 바이슈바데바 예배의 장소와 대상

앞 장에서 언급한 아그니호트라와 가정 제식문헌과 다르마수트라 문헌의 아침과 저녁 의례의 관계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그니호트라는 3개의 목적을 내포했다. 첫째는 태양활성화를 의례화, 둘째는 불을 관리하는 것을 의례화, 셋째는 아침과 저녁에 다양한 신격, 모든 존재를 예배하는 것이다. 아그니호트라의 첫째 목적을 가정 제식문헌 단계에서 아침과 저녁 헌공으로 이어받고 있다.

그 문헌은 아침과 저녁 헌공의 때는 명확히 지정하지는 않지만, 대개 일몰과 일출 때에 행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불을 관리하는 것을 의례화하는 것은 가정 제식문헌과 다르마수트라 시대에는 아직 가장의 제식행위로 정착되지 않았다. 셋째 목적은 가정 제식문헌과 다르마수트라 시기에 식사 준비 다음에 거행하는 바이슈바데바 예배로 수용되었다.

무엇보다 아침과 저녁 헌공은 태양활성화 의례와 관계를 갖지만, 보데비츠(Bodewitz)가 역설하듯⁵¹⁾ 가정 제식문헌과 다르마수트라 시대의 바이슈바데바 예배는 태양활성화 예배와 관계는 포기한 채, 일몰 후 또는 늦은 오전의 식사 시간에 거행하는 것으로 변형되었다. 이렇게 슈라우타 제식문헌이 규정한 아그니호트라라는 가정 제식문헌과 다르마수트라 시대에 부분적으로 아침과 저녁 헌공 혹은 바이슈바데바 예배로 변용되었다.

그러나 가정 제식문헌 이후의 문헌에서 의례화가 진행된 아침과 저녁 헌공과 바이슈바데바 예배는 성립할 때부터 한 묶음으로 취급되지는 않았다. 또한 두 의례가 가정 제식문헌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2차적으로 삽입 추가된 인상을 받는다. 이 두 가지 쟁점을 이하에서 논하고자 한다.

[표 2]와 [표 3]에서 아침과 저녁 헌공과 바이슈바데바 예배를 규정한 가정 제식문헌군의 일람표를 제시했다. 두 표를 보면 우선 『바라하 그리히야수트라』(*Vārāha-grhyasūtra*)는 아침과 저녁 헌공을 다루지 않는다. 또한 두 의례를 연속하여, 즉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언급하는 문헌들도 있지만, 바라드바자(Bhāradvāja), 마나바(Mānava), 파라스카라(Pāśaskara), 아슈발라야나(Āśvalāyana), 샹카야나(Śāṅkhāyana), 고비라(Gobhila) 학파의 가정 제식문헌은 두 의례를 언급하는 부분이 전혀 다르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처음에는 두 의례가 한 묶음으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가정 제식문헌이 본래 다루었던 의례 대상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를 지금은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것

51) Cf. Bodewitz(1976), p.197.

처럼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삶의 단계에서 행하는 인생의례와 가장이 행하는 계절의례가 중심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즉 가정 제식문헌에서 원래 두 의례를 다루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부터 부정적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첫째, 전술했지만 『바라하 그리히야수트라』가 아침과 저녁 헌공을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둘째, 올덴베르그(Oldenberg)는 『상카야나 그리히야수트라』에서 바이슈바데바 예배의 위치에 의구심을 표명하며,⁵²⁾ 롤란드(Rolland)는 『바라하 그리히야수트라』의 부분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고 단언한다.⁵³⁾

그리고 상황전거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있다. 즉, 대부분의 가정 제식문헌이 아침과 저녁 헌공을 결혼의례의 일환으로 신랑과 신부가 언약하는 의식을 끝마치고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디더나가는 시작 부분에서 언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타카 그리히야수트라』(*Kāthaka-grhyasūtra*)는 문헌이 거의 끝 부분인 53장에서 취급한다. 그것도 가정 제식의 희생제인 술라가바(*sūlagava*)와 55장 이하의 일부 계절과 관련된 제사 사이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곳이다. 또한 상카야나(*Śāṅkhāyana*)와 고비라(*Gobhila*) 학파의 가정 제식문헌은 머리말의 총설적인 언급에서 아침과 저녁 헌공을 기술한다. 그런데 문헌의 머리말에서 총설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가정 제식문헌군이 체계화된 시기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바이슈바데바 예배에 대한 상황전거로는 다음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수트라』 1.2.40~44는 베다학생의 의무를 언급한다. 그곳에서 헌공은 제화들 사이에서 거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가정 제식문헌들이 규정하는 것과 같이, 제화 이외의 집의 다양한 장소에서 거행된 헌공은 언급하지 않는다.

『히란야케쉬 다르마수트라』에 처음 다른 가정 제식문헌들과 같은 언급이 있다. 2.1.43~45의 규정에 따르면, 바이슈바데바 예배를

52) Oldenberg(1967), p.84를 보라.

53) Rolland(1971), p.18을 보라.

처음 거행하는 사람은 일종의 예비의례를 거행해야만 한다. 또한 『보다야나 그리히야수트라』 2.9.25, 『바라드바자 그리히야수트라』 3.12(79.1~3), 『아파스탐바 그리히야수트라』 2.2.3.12~14에서도 유사한 것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바이슈바데바 예배는 모든 가정의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의지로 거행하는 의례였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아침과 저녁 헌공과 바이슈바데바 예배는 한 묶음이 아니고, 본래 가정 제식의 총체적 틀 밖에 있던 것으로, 가정 제식에서 이차적 성격을 갖는다. 더욱이 바이슈바데바 예배는 가장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질 의무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현존하는 대부분의 가정 제식문헌들은 슈라우타 제식문헌이 규정한 아그니호트라에서 변용된 두 의례를 언급하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바이슈바데바 예배는 가정 제식문헌군 이후에 저술된 문헌에서 언급하는 5대(大) 제사(pañca-mahā-yajña)를 체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문제에 대한 논의, 즉 바이슈바데바 예배들 자체의 비교와 5대(大) 제사에 대한 고찰은 다른 기회에 하겠다.

V. 가정 제식문헌에 대한 보유문헌의 삼디야우파사나

지금까지 슈라우타 제식문헌과 가정 제식문헌, 그리고 보조 경전인 다르마수트라가 규정한 아침과 저녁 의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들이 현재 인도 미틸라 지방에서 거행되는 아침과 저녁 일과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가정의 기본 의무로서 삼디야우파사나를 처음 규정하는 가정 제식문헌에 대한 보유문헌의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미틸라 지방에서 관찰했던 의례의 원형에 해당될 것이다. 슈라우타 제식문헌과 다르마수트라에 관련해서 히란야케쉬파의 문헌 중심으로 소개해왔기에, 보유문헌도 같은 제식학파의 문헌인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Hiranyakeśi-grhyaśeśasūtra*)에서 언급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소개한다.

이 문헌은 세 곳(1.1.10~11, 1.2.3, 1.2.7)에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언급한다. 그 중 앞의 둘은 다양한 설명으로 의례행위에 대한 서술이 중단되지만, 셋째(1.2.7) 것은 충실하게 의례행위 자체를 설명한다. 우선 번역을 통해 가정 제식문헌에 대한 보유문헌이 규정하는 삼디야우파사나를 살펴보자. 참고문헌은 아침과 저녁 헌공을 소개할 때의 책 656쪽에 이어지는 『삿티야샤다비라싯타 히란니야 케쉬 그리히야세샤스트람』(*Satyāsādhaviracita-hiranyakeśi-grhyaśeṣasūtram*)의 11~12쪽이다.

1. 그곳에서 양손을 씻고 물 항아리와 흙덩어리를 손에 들고 강의 도하점(渡河點)까지 가서 세 번 양발을 씻는다. 세 번 자기 자신을.
2.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무덤, 물, 신의 집, 소 우리, 바라문이 있는 곳, 그런 곳에는 양발을 씻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된다.”
3. 그곳에서 물속으로 들어간다. “금의 뿔을 지닌 바루나에게 나는 나아간다. 청함을 듣는 그대는 나에게 도하점(渡河點)을 주라. 좋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아] 먹은 것, 악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 내가 마음으로, 말로, 아니면 행위로 행한 악행, 그것들을 [정화하라]. 나를 위해 인드라, 바루나, 브리하스파티, 사우트리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정화하라”라고 읊조리고.
4. 그곳에서 양손을 모아서 물을 때린다. “물은, [그리고] 풀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라”라고 읊조리고.
5. 미워하는 상대가 있는 방향으로 물을 뿌린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가 미워하는 자, 그들에게 비우호적인 자가 되라”라고 읊조리고.
6. 그곳에서 물을 만지고 오른쪽 방향으로 돈다. 세 번 물을 뿌리면서 돈다. “물의 무서운 부분, 부정할 부분, 잠잠하지 않은 부분은 물리하라”라고 읊조리고.
7. 물속에 머리까지 담갔다 떼올라서.
8. 물 가운데 [있으면서는] 용변(用便)을 보지 않는다. 의복을 씻지 않는다. 물을 입에 머금지 않는다.
9. 만일 물이 손상되었다면 만트라로 예배하라. “물 가운데 있는 아그니에게 경배(敬拜). 인드라에게 경배. 바루나에게 경배. 바루나의 부인에게 경배. 물에게 경배”라고.
10. 물에서 나와 입을 닦는다. 한 번 더 입을 닦는다. “물은 대지를 정화하라. 정화된 대지는 나를 정화하라. [물과] 브라마나스파티는 정화하라. 브라마에게 정화된 [대지]는 나를 정화하라.” “남은 것을, 향수해서는 안 되는 것을, 또한 나의 악행을, 나의 모든 것을 물은 정화하라. 그리고

좋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을. 스바하”라고 읊조리고.

11. 두 개의 풀줄기로 정화 도구를 만들어서 물로 신체를 닦는다. “그 대들 물은 실제로 원기(元氣)를 주는 것이 되라”라고 시작하는 3개 만트라와 “금색으로, 청정으로, 정화하는 힘이 있는”이라고 시작하는 4개 만트라와 “정화되어 가는, 태양의 가운데의 사람은”이라고 시작하는 구절의 만트라를 읊조리면서.

12. 신체를 씻고 물속에 들어가서 아가마르사나(Aghamarsana, 죄를 닦아내는 자) 만트라를 읊조리고 세 번 조식(調息)을 한다.

13. 물에서 나와 의복을 두들겨서 [빨고] 행구고 바람에 건조시키고 나서, 떨어지지 않은 [새] 의복을 걸친다.

14. 짚으로 만든 [방석] 위에 앉아 풀줄기를 손으로 잡고 동쪽 방향으로 사비트리(Sāvitṛī) 만트라를 천 번 반복해야만 한다.

15. 혹은 100번, 아니면 임의의 횟수를. 최저로 10회를.

16. 그곳에서 태양을 예배한다. “진실의 공간을 지나서” “우리는 어둠의 저곳으로부터” “그리고 그 자타베다(Jātaveda)를” “빛나는 신들의 얼굴은” “그 눈이 신들에 의해서” “거대한 바다로부터 일어난 자”라는 만트라를 읊조리고.

이상이 『히란야케슈 그리히야세샤수트라』 1.2.7이 전하는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이다. 이것과 현재 미틸라 지방에서 행하는 의례를 비교하기 위해 [표 6]을 만들었다. 몇 가지 상이점과 공통점이 있다.

I.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사수트라』	
1. 목욕(1-9)	TA 10.1[702.23~26]; [702.15~16]; [703,12]; [703.7-8]
2. 물을 훌쩍 마심(10)	TA 10.23[740.23~741.1]
3. 신체를 씻음(11)	RV 10.9.1~3; TS 5.6.1a-d; TB 1.4.8
4. 조식(12)	RV 10.190
5. 의복을 걸침(13)	
6. 사비트리를 읊조림(14-15)	RV 3.62.10; TS 3.4.11f; RV 1.50.10
7. 태양의 예배(16)	RV 1.50.1; RV 7.65.16; TA 4.42[252.21~23]
II. 미틸라(Mithila) 지역	
1. 몸의 정화 원천을 모르는 2개 만트라;	RV 10.190; 원천을 모르는 만트라
2. 조식(→2)	RV 3.62.10
3. 물을 훌쩍 마심	TA 10.25[742.15~19]; TA 10.23[740.23~741.1]
4. 신체를 씻음	RV 10.9.1~3; AV 6.115.3
5. 부정을 털어 냄	RV 10.190; ŚaṅkhaS 9.16[356.10~11]
6. 태양의 예배(→7)	RV 1.50.10; RV 1.50.1; RV 1.115.1; RV 7.65.16
7. 가야트리를 읊조림 중심 만트라	RV 3.62.10
8. 신들을 만족시킴(tarpaṇa)	
<p>약칭 TA: Taittirīya-aranyaka, RV: Ṛgveda-saṃhita, TS: Taittirīya-saṃhita; TB: Taittirīya-brahmana, AV: Atharvaveda-saṃhita, ŚaṅkhaS: Śaṅkha-saṃhita (밑줄 친 것은 양쪽 예식에서 공통된 만트라들이다).</p>	

[표 6] 두 삼디아우파사나 의례의 실례 비교

첫째 차이점은 보유문헌의 삼디아우파사나 의례는 강에서 목욕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자(Jha)씨는 의례를 시작하기 전에 우물이 있는 곳에서 목욕을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집 베란다에 앉는다. 즉, 현재는 목욕 자체를 의례 속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대신 자리에 앉아서 “몸을 정화하라”라는 만트라들을 읊조리면서 정화행위를 한다. 이것이 의례적 목욕에 대응하는 것이다.

둘째 차이점은 조식(調息)에서 두드러진다. 두 의례에서 거행하는 장소와 사용하는 만트라가 완전히 다르다. 다음 장에서 삼디아우파사나 의례의 성립을 논할 때 언급하겠지만, 조식이 처음 의례화된 것은 베다학습 중단 의례가 규정된 시기이다. 즉, 매년 우기

(雨期)가 시작하면서 개시된 베다학습이 가을에 중단되는데, 이때 행하는 일련의 의례행위 중에 조식이 포함된다.

여기서 조식은 아가마르샤나 찬가(RV 10.190)를 읊조리며 행한다.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수트라』 2.8.6:651.2~3는 “아가마르샤나 [만트라]를 읊조리면서 세 번 조식을 하고”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찬가를 사용하는 조식은 목욕할 때도 한다. 『아그니베쉬야 그리히야수트라』(Āgñiveśya-grhyasūtra) 2.6.2:95.15와 『바우다야나 다르마수트라』(Baudhāyana-dharmasūtra) 2.5.12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아가르샤나 [만트라]를 읊조리며 세 번 조식을 하고”라고 같은 규정을 한다.

그런데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사수트라』 1.1.10:4.27~28의 규정에 따르면, 가야트리 또는 사비트리 만트라(RV 3.62.10)를 읊조리며 조식을 한다. “브야흐리티(vyāhrti), 프라나바(pranava), 머리 [셋을] 모두 호흡을 통해 불러들여 세 번 가야트리를 반복한다. 이것이 조식이라고 불린다.” 유사한 조식의 정의가 가정 제식문헌군의 이후 시대에 많은 문헌들에서 반복되며 나타난다. 즉, 『바우다야나 다르마수트라』 4.1.28, 『아타르바베다 파리슈슈타』(Atharvaveda-pariśiṣṭa) 42.1.9, 『카르마프라디파』(Karmapradīpa) 2.1.8 등이다.

이것은 이미 베다 후기에 조식 행위가 일종의 변용을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베다학습 중단 의례가 삽입되기 시작한 시기에 의례에 포함된 조식은 아가마르샤나 찬가를 사용하고, 목욕의례에서도 한다. 그런데 가정 제식문헌의 보유문헌 시대가 되면, 가야트리 만트라를 사용하는 조식이 일반적인 것이 된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한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사수트라』 1.2.7이 규정한 삼디아우파사나 의례에 따르면, 조식을 할 때 아주 오래된 형태인 아가마르샤나 찬가를 한다. 반면에 당연한 사실이지만 현재의 거행되는 삼디아우파사나 의례에서는 아주 새로운 제2형식으로 가야트리 만트라를 사용한 조식을 한다.

한편 보유문헌에서 조식은 ‘신체를 닦는’ 의례행위에 이어서, 아가마르샤나 찬가를 사용했다. 현재 미틸라 지방에서도 ‘신체를 닦는’ 의례행위에 이어서 조식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아가마

루샤나 찬가를 사용하는 의례행위를 거행한다. 공통점에 중점을 두자면, 두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에 규정된 일련의 행위들은 대개 대응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는 1.2.7에 이어서, 흙을 이용한 목욕과 마하푸루샤(Mahāpuruṣa)와 마하데바(Mahādeva)에 대한 매일의 푸자(pūjā)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미틸라 지역의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의 신들, 선인들, 조상의 영들을 만족시키는 예배(tarpaṇa)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그러므로 보유문헌과 현재 거행되는 의례가 기본적으로는 대응관계를 보이지만, 상이점 중 하나는 ‘만족시키는 예배’ 즉, 타르파나 예배가 있고 없는 것이다. 타르파나에 대해서는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의 성립을 언급하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VI. 삼디야우파사나의 성립과 아침 행위의 의례화

앞 장에서 가장의 의무로 규정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가정 제식문헌군의 시대에 이미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는 현존하는 약 반수의 가정 제식문헌에서 베다학생의 의무로 규정된다. [표 7]은 그와 관련된 가정 제식문헌들의 일람표이다. 그 가운데 『아슈발라야나 그리히야수트라』(Āśvalāyana-grhyasūtra) 3.7.3~6은 그저 사비트리 만트라를 반복하는 매우 단순한 의례행위만을 규정한다.

베다학생의 의무로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의 보다 복잡한 형태는 『자이미니야 그리히야수트라』(Jaiminiya-grhyasūtra) 1.13에 있다. 그 내용을 제시한 [표 8]과 가장의 의무로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정리 [표 6]을 비교해보면, ① 신체를 닦는 행위, ② 조식, ③ 사비트리 만트라를 읊조리는 것, ④ 불의 신 아그니와 태양 등의 예배라는 행위들이 대응관계를 보인다. 『자이미니야 그리히야수트라』가 규정에서 만트라와 함께 하는 신체를 닦는 행위가 있지만, 베다학생의 의무로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규정하는 다른 가정 제식문헌들은 신체를 닦는 행위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때문에 단순히 사비트리 만트라를 반복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으로부터, 가장의 의무로서 규정된 아침과 저녁 헌공에 매우 가까운 형태로 규정된 것까지, 일부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가정 제식문헌군 시대에 전해지는 베다학생의 의무인 삼디야우파사나 의례 내용이 가장의 의무로 규정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의 핵심요소의 원형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1. <i>Kāṭhaka-gr̥hyasūtra</i>	1.25-28
2. <i>Manava-gr̥hyasūtra</i>	1.2.1-5
3. <i>Varāha-gr̥hyasūtra</i>	5.30
4. <i>Śaṅkhyana-gr̥hyasūtra</i>	2.9.1-3
5. <i>Āśvalāyana-gr̥hyasūtra</i>	3.7.3-6
6. <i>Kauṣītaki-gr̥hyasūtra</i>	2.6.3-4
7. <i>Jaiminiya-gr̥hyasūtra</i>	1.13

[표 7] 베다학생의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규정하는 그리히야수트라

1. 신체를 씻음(13.15-16)	RV 10.9.1-3; 9.58.1-4
바마데비아(Vamadevyā)(cf. Caland 1922: p.22)	
2. 명상(13.16-18)	만트라 없음
3. 조식(13.18)	만트라 없음
4. 사비트리를 읊조린다(13.19)	RV 3.62.10
5. 아그니의 예배(13.19-20)	RV 5.24.1
바루나의 예배(13.20-21)	RV 7.12.3
6. 태양의 예배(13.21-14.1)	RV 1.50.10
미트라의 예배(14.1)	RV 8.101.5

(밑줄은 [표 6]과 대응하는 만트라를 표시한다)

[표 8] 『자이미니야 그리히야수트라』의 삼디야우파사나

그러나 두 의례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상이점은 의례의 행위자가 서로 다르다. 가정 제식문헌군 시대에는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의 행위자는 아직 베다학생이기에, 가장의 의무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규정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즉, 아침과 저녁 헌공과 바이슈바데바 예배가 가장의 의무로서 규

정되는 보유문헌 시대와는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둘째 상이점은 보유문헌의 시대에 삼디야우파사나 의례가 가장의 의무로 규정되고 나서 의례행위 일람표의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자이민니야 그리히야수트라』가 전하는 가정 제식문헌 단계의 가장 복잡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표 8]에서 소개했다.

그 첫째 행위, 즉 『리그베다』 10.9.1~3 등의 만트라를 읊조리면서 신체를 닦는 의례행위는 가정 제식문헌군의 시대에는 이 문헌에서만 언급된다. 그러므로 이 문헌의 규정을 예외로 하면 가정 제식문헌의 베다학생의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에는 신체를 닦는 의례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의 의무로서 규정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는 보유문헌 단계에서 ① 목욕, ② 입을 닦는 것, ③ 신체를 닦는 것 등의 세 의례행위가 추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재 거행되는 의례에서 매우 복잡한 구성을 보이는 신들, 선인, 조상의 영들을 만족시키는 타르파나 예배도 첨가된다. 그 결과 단지 사비트리 만트라를 반복하는 것일 뿐인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와 비교할 때, 많이 확대된 형태가 되었다.

일부 가정 제식문헌들이 베다학생의 의무로서 규정하는 아주 단순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가 보유문헌에서 전하는 가장의 의무로서의 의례의 핵심적 원형이라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그런데 삼디야우파사나 의례가 보유문헌에서 가장의 의무로서 규정되기 시작할 때, 행위의 주체의 변화와 함께 의례를 구성하는 의례행위의 확대도 발생했다. 이 장의 후반부에서 확대된 의례행위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 1.2.7을 중심으로 보유문헌 시대의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소개할 때,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1.1.10~12과 1.2.3에서도 동일하게 가장의 의무로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규정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 중에서 제1권 제1장은 18계송으로 이루어졌는데, 1.1.10~11의 규정을 포함하여, 가장의 하루 일과의 의무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술한다.

머리말은 “그곳에서 지금으로부터 올바른 행위(ācāra)를 우리는 설명한다”라고 시작하여 “올바른 행위를 통해 다르마를 얻는다. 올바른 행위를 통해 재산을 얻는다. 올바른 행위를 통해 행복을 얻는다. 올바른 행위를 통해 해탈을 얻는다”라고 읊조리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아차라(ācāra)를 칭송하는 구절은 계속되고, 이어서 잠에서 깨어나서부터 행하는 명상으로부터 시작하여 밤에 잘 때 머리 두는 방향에 관한 규정으로 끝맺는 하루의 올바른 행위를 상세하게 규정한다. 그리고 일과로서의 행위 규정을 “이와 같이 알고서 하루 [일과] 행위를 지켜야만 한다. 다시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도, 언급된 대로 남김없이 행해야만 한다. 이처럼 행위의 장이 [지시하는 것을] 실행하는 자는 다르마(dharma, 法), 아르타(artha, 富), 카마(kāma, 愛), 모크샤(mokṣa, 解脫)을 완성한다”라는 하루의 행위규범을 기술하는데, 그 내용은 [표 9]에 있다.

이 표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침의 모든 행위가 의례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아침의 행위를 의례화하는 과정에서 가장의 의무인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의 행위들도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1.1.1(1.4-8)	기상과 명상
2. 1.1.1-2(1.8-30)	용변(用便)의 규정
3. 1.1.3(2.1~15)	입을 닦는 규정
4. 1.1.4-5(2.16-3.2)	이빨을 닦는 규정
5. 1.1.5-6(3.2-17)	목욕의 규정
6. 1.1.7(3.18-19)	의복의 규정
7. 1.1.7(3.19-20)	침묵의 규정
8. 1.1.7-8(3.20-4.1)	성스러운 끈의 규정
9. 1.1.8(4.1-8)	목욕의 규정
10. 1.1.8-9(4.8-23)	이마에 수직선 셋, 수평선 셋, 툴라카 모양을 색칠하는 것 (ūrdhvapuṅdra, tripuṅdra, tilakacandana) 등의 규정
11. 1.1.10-11(4.24-5.22)	삼디야우파사나 규정
12. 1.1.11(5.23-24)	삼디야우파사나와 브라흐마야즈냐(brahmayajña)
13. 1.1.11-12(5.24-6.8)	만족시키기는 예배(tarpaṇa)
14. 1.1.13-14(6.9-7.2)	신들에 대한 푸자(pūja)
15. 1.1.15(7.3-5)	연장자들에게 인사
16. 1.1.15(7.5-9)	배다학습
17. 1.1.16-18(7.10-8.11)	식사에 대한 규정
18. 1.1.18(8.12-17)	낮의 행위, 저녁의 행위, 취침의 행위

[표 9]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 1.1의 내용

[표 9]에서 소개한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 1.1의 내용 중 앞 쪽에 있는 ① 용변, ② 입을 닦는 것, ③ 이빨을 닦는 것, ④ 목욕의 규정을 살펴보자. 이 모든 의례행위는 만트라를 읊조리면서 혹은 일정한 방법에 따라 한다고 규정된다. 사람이 아침에 깨어나서 행하는 일반적 행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기본적으로 가정 제식문헌군의 보유문헌 시대이다. 기본적으로 말한 것은 이미 『바이카나사 그리히야수트라』(Vaikhānasa-grhyasūtra) 1.2~5와 『아그니베쉬야 그리히야수트라』(Āgñiveśya-grhyasūtra) 2.6.1~8라는 두 가정 제식문헌이 유사 규정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아침의 일반적 행위를 의례화한 내용을 규정한다는 사실로부터 역으로, 그것들이 문헌적으로는 가정 제식문헌군에 속하지만, 시대적으로는 보유문헌과 같은 시대의 층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보유문헌 시대가 되어서 아침의 일반 행위에 대한 의례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유문헌과 동 시대 문헌들에서 아래 실례를 들 수 있다. 『파라스카라 그리히야수트라 파리쉬슈타』(*Pāraskara-grhyasūtra-pariśiṣṭa*), 『아타르바베다 파리쉬슈타』(*Atharvaveda-pariśiṣṭa*), 『카르마프라디파』(*Karmapradīpa*)라는 가정 제식문헌군의 보조학문, 『바우다야나 다르마수트라』(*Baudhāyana-dharmasūtra*)와 『비슈누스무리티』(*Viṣṇusmṛti*) 등이다. 이 문헌들의 내용을 크게 구분하여 나타낸 [표 10]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아침의 일반 행위에 대한 의례화의 일환으로 삼디아우파사나 의례와 타르파나 예배를 언급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문헌들이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 1.1과 거의 같은 시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 『파라스카라 그리히야수트라 파리쉬슈타』	
① 용변의 규정(409.25~410.1)	
② 입을 닦는 규정(410.1~20)	
③ 목욕의 규정(410.22~411.9)	아가마르샤나, 조식을 포함
④ 태양의 예배 규정(415.3~7)	가이티리를 읊조리는 것을 포함
⑤ 타르파나 규정(417.33~418.15)	
2. 『아타르바베다 파리쉬슈타』	
① 삼디야우파사나 규정(41)	입을 닦는 것, 신체를 씻는 것, 조식, 태양의 예배, 사비트리(Savitri)를 읊기
② 목욕의 규정(42)	조식, 아가마르샤나, 의복, 침묵 규정
③ 타르파나 규정(43)	
3. 『카르마프라디파』	
① 삼디야우파사나 규정(2.1)	입을 닦는 것, 신체를 씻는 것, 조식, 아가마르샤나, 태양 예배
② 타르파나 규정(2.2)	
4. 『바우다야나 다르마수트라』	
① 삼디야우파사나 규정(2.7)	(= Hiranyakeṣi-gr̥hyaśeṣaśāstra, 1.2.3)
② 삼디야우파사나 규정(2.8)	(= Hiranyakeṣi-gr̥hyaśeṣaśāstra, 1.2.7)
③ 타르파나 규정(2.9~10)	

④ 입을 닦는 규정(1.8.9-21)	
⑤ 용변의 규정(1.10.10-14)	
5. 『비슈누스므리티』	
① 용변의 규정(60)	
② 이빨을 닦는 규정(61)	
③ 입을 닦는 규정(62.1-6)	
④ 신체를 씻는 규정(62.7-9)	
⑤ 목욕의 규정(64.1-23)	
⑥ 타르파나 규정(64.24-34)	

[표 10] 몇 개의 보유문헌의 내용 일람

인도에서 문헌의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금 열거한 문헌들과 관련하여 비교연대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조차

하다. 그러나 각 문헌들이 전하는 규정 내용들로부터 그것들이 어느 시기에 속하는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논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 문헌들이 아침의 일반 행위를 의례화하고 그 일환에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와 타르파나 예배를 규정한다는 사실에서 그 해당 부분이 보유문헌 시대에 속한다는 것은 대충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태양을 향해 가야트리 만트라를 읊조리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삼디야우파사나 의례가 가정 제식문헌에서 베다학생의 의무에서 가장의 의무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의 본질적 변용의 첫 단계이다. 동시에 그 의례에 ① 목욕, ② 입 닦기, ③ 신체를 닦는 것 등의 의례행위가 추가되면서 의례행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신들, 선인들, 조상의 영들을 만족시키는 타르파나 예배를 함께 거행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이 의례에 추가된 목욕, 입 닦기, 타르파나 등의 의례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그런데 아침의 일반 행위에 대한 의례화의 일환으로 용변의 규정 등과 함께 실행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들을 종합하면, 아침에 행하는 행위를 이처럼 정리할 수 있다. 가장은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 용변을 마친다. 이어서 목욕장으로 가서, 입을 닦고, 이빨을 닦고, 물속으로 들어가 목욕을 하고, 의복을 빨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조식, 가야트리 만트라를 읊조린다. 태양의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행하고, 마지막으로 신들, 선인들, 조상의 영들을 만족시키는 타르파나 예배를 거행한다. 일련의 의례행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정 제식문헌이 규정하는 아침과 저녁 헌공과 바이슈바데바 예배를 행하거나 신들에 대한 푸자(pūjā)를 거행한다. 식사를 마치고 베다학습 등을 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아침과 저녁 헌공과 바이슈바데바 예배에서 베다학습 등의 의례행위가 5대(大) 제사(pañca-mahā-yajña)로서 보유문헌과 다르마 문헌 이후 시대에 조직화되지만, 이 주제는 지금 다루는 아침의 일반적 행위의 의례화의 맥락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

에 지금 논하지 않겠다.

아침의 일반 행위에 대한 의례화의 핵심이 되는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는 가정 제식문헌이 규정한 베다학생의 의무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그러면 그 이외의 입 닦기, 목욕, 신체를 닦는 행위, 타르파나 예배 등의 의례행위는 어느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가능할까.

여기서 문제시 되는 것은 삼디야우파사나 의례 때와 마찬가지로 베다학생에 관련된 행위이다. 예를 들면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 2.8.5~19에 베다학습을 중단할 때 행하는 의례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 일련의 의례행위에서 『리그베다』 10.190의 만트라를 읊조리는 조식(調息)이 먼저 언급된다. 이것에 대해 제5장에서 이미 다루었다.

그리고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 1.2.7에서 소개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의 행위는 신체를 닦을 때에 사용되는 만트라(RV 10.9.1~3; TS 5.6.1a-b, TV 1.4.8)들을 읊조리면서 행하는 목욕을 언급하고, 이 문헌의 2.8.7~15는 매우 상세하게 신들, 선인, 제식 학파의 옛 대학자들, 그리고 베다학생의 조상의 영들에 대한 타르파나 예배를 언급한다.

베르그(Oldenber)는 베다학습 중단 때에 의례에서 거행된 타르파나 예배가 보유문헌 이후에 아침의례로서 정착된 타르파나 예배의 원형이라고 해석한다.⁵⁴⁾ 이처럼 베다학습 중단 의례에서 시작해서 조식, 목욕(신체를 닦는 것), 타르파나 예배라는 3개의 의례행위들이 만트라와 함께 거행되는 의례로 규정된다.

다음으로 고려할 의례 하나가 있다. 그것은 베다학생의 졸업식에 해당하는 사마바르타나(samāvartana) 의례이다. 예를 들면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 1.6.20~21은 만트라를 읊조리면서 이빨을 닦고, 베다학습 중단 의례 때와 만트라들을 읊조리면서 행하는 목욕의례를 언급한다. 이 밖에도 여러 의례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다학습을 마치고 졸업식을 거친 사람을 스나타카(snātaka), 즉

54) Oldenberg(1967), pp.120f를 보라.

‘목욕을 한 자’라고 부르는 사실로부터, 이 의례에서 목욕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용변의 규정은 가정 제식문헌을 포함하여, 보유문헌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 입 닦기의 의례행위도 입을 닦는 행위 자체는 이미 슈라우타 제식문헌 시대에 의례에 포함되었지만, 그곳에서는 만트라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을 닦는 행위도 보유문헌에서 처음 의례화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가장의 의무로 확정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구성하는 의례행위는 ① 입 닦기, ② 목욕(신체를 닦는 것), ③ 조식, ④ 사비트리 만트라를 읊조리는 것, ⑤ 태양의 예배, ⑥ 타르파나 예배라는 6개 대표적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 입을 닦는 의례행위는 보유문헌에서 처음 의례화되었지만, 다른 5개 의례행위는 모두 베다학생에게 제시된 의례행위에서 원천을 찾을 수 있다.

본래 가정 제식문헌이 규정하는 의례는 탄생에서 죽을 때까지 삶의 단계에서 행하는 인생의례와 계절의례 일부였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 제식문헌은 가장이 하루 동안 행해야만 하는 행위규범을 규정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유문헌은 이전 시대의 가정 제식문헌이 언급하는 내용들을 이용하여, 가장 특히 바라문 가장이 하루 동안 지켜야 하는 행위규범을 새롭게 만들고자 시도했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이미 가정 제식문헌에서 베다학생에게 특정 상황에서 제시된 일부 의례행위를 중심으로, 보유문헌이 새롭게 가장이 지키는 하루의 행위규범을 만들어 낸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VII. 결론: 아침과 저녁 의례의 변용과 탈 베다화

현재 인도에서 관찰되는 아침 일과 마하데바푸자(Mahādevapūjā)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삼디야우파사나 의례에 대한 보고를 출발점으로 베다문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서로 다르게 규정된 몇 개의 아침과 저녁 예배를 살펴보았다. 베다시대의 제식행위를 규정한 문

현 중 첫째인 슈라우타 제식문헌(śrautasūtra)은 아침과 저녁 일과로서 아그니호트라 의례를 제시한다. 슈라우타 제식문헌에서 상술하는 아그니호트라는 베다문헌의 아주 오래된 층에 속한 흑야주르베다 상히타(Black Yajurveda Saṃhitā)에서 이미 주석의 대상이 되었기에, 그 제식은 기원전 천년기의 전반에 성립되었다고 상정할 수 있다.

그 아그니호트라의 3가지 의례적 목적은 이렇다. 첫째, 아그니호트라의 중심적 제식행위로서, 제화(= 태양)로 따뜻하게 된 우유를 태양(= 제화)에 뿌리는 것을 통해 실현되는 태양활성화이다. 둘째, 불의 유지와 관리라는 일상 행위의 의례화이다. 셋째, 아침과 저녁이란 시간적 접점에서 일상과 관련된 존재들을 예배하는 것이다.

슈라우타 제식문헌군에 이어지는 가정 제식문헌군은 가정의 아침과 저녁 일과로서 두 의례, 즉 아침과 저녁 현공과 바이슈바데바 예배를 규정한다. 이 중에 아침과 저녁 현공은 슈라우타 제식문헌의 아그니호트라의 첫째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한편 바이슈바데바는 아그니호트라의 핵심 현공을 이어받는 것으로 아그니호트라의 셋째 목적에 대응한다.

하지만 슈라우타 제식문헌과 가정 제식문헌 사이에는 각 문헌들이 규정하는 제식행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식행위 주체와 자격에도 차이가 있다. 슈라우타 제식문헌이 규정하는 다양한 제식행위는 결혼의례 이후 제화설치제를 통해 ① 가르하파티야(gārhapatya, 가장의 제화), ② 다크신아그니(dakṣiṇāgni, 조리용 제화), ③ 아하바니야(āhavanīya, 현공용 제화)라는 3개의 제식용 제화를 설치한 경험이 있는 자만이 거행할 수 있다. 행위자의 자격 및 제식행위의 세부사항에 까지 차이가 있는 슈라우타 제식문헌의 아그니호트라가 기본적으로는 가정 제식문헌의 두 의례, 즉 아침과 저녁 현공과 바이슈바데바 예배에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두 의례가 가정 제식문헌군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관해서는 약간 유보해야 할 점이 있었다. 슈라우타 제식문헌의 아그니호트라를 이어받는 것으로 간주된 두 의례가 한 묶음으로서 취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매우 이른 시기에 두 의례가 2차적 요소로 가정 제식문헌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슈라우타 제식문헌이 규정하는 아그니호트라와 가정 제식문헌에서 언급된 두 의례는 어느 정도 연속성을 지닌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것들은 현재 인도에서 발견되는 아침과 저녁 일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베다의 제식 세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 제식문헌군의 보유문헌이 전하는 가장의 의무로서 아침과 저녁에 행하는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는 전혀 다른 양상을 갖는다. ① 입 닦기, ② 목욕(신체를 닦는 것), ③ 조식, ④ 사비트리 만트라를 읊조리는 것, ⑤ 태양의 예배, ⑥ 신들, 선인들, 조상의 영들에 대한 타르파나 예배라는 일련의 행위로 구성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는 보유문헌의 단계에서 처음 형성된다.

그러나 의례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들 가운데, 입 닦기를 빼고 다른 것들은 베다학생의 매일의 의무, 또는 베다학습 중단 의례, 베다학습을 종료하는 의례로 있던 의례행위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가 현재 인도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보유문헌 시대와 현대의 중간에 있는 문헌, 예를 들면 『파드마푸라나』(*Padma-purāṇa*) 1.49.1~74는 아침 일과와 관련해서 [표 11]과 같은 내용을 언급한다. 이것은 [표 9]에 소개한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 1.1의 내용과 거의 대응한다. 푸라나 문헌군은 힌두교적인 모든 것의 백과사전에 해당한다. 이런 푸라나 문헌이 전하는 것과 유사한 의례를 가정 제식문헌의 보유문헌이 언급하는 것은, 그것들이 베다적 제식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힌두교적 제식 세계를 기록한 최초의 문헌군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1. 올바른 생활 규범에 대한 질문	1.49.1
2. 아침에 일어나기, 신들을 상기(想起)	1.49.2-9
3. 용변	1.49.10
4. 이빨 닦기	1.49.11ab
5. 가야트리(gayatri)를 상기	1.49.11cd~12
6. 목욕	1.49.13-20
7. 타르파나(tarpaṇa)	1.49.21-63
8. 신들에 대한 पूजा(pūjā)	1.49.64-65
9. 바이슈바데바(vaiśvadeva)	1.49.66ab
10. 불 관리, 제식행위, 바라문 응대(供応)	1.49.66cd~68cd
11. 아침 일과를 행하는 이유	1.49.68cd~74ab

[표 11] 『파드마 푸라나』 1.49.1~74의 아침 일과

앞에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소개할 때, 사용한 『히란야케쉬 그리히야세샤수트라』는 많은 항목이 유사 문헌인 『바우다야나 그리히야세샤수트라』의 내용과 대응관계를 갖는다. [표 12]는 두 보유 문헌이 언급하는 힌두교적 신들의 예배 규정 중 대응하는 것의 일부이다.⁵⁵⁾ 여기서 예배 대상이 된 신들은 힌두교의 2대 주신인 비슈누와 루드라(쉬바)를 비롯한 두르가(Durgā)와 비나야카(Vināyaka) 등이다. 예배의 방법도 ① 신상을 안치하고, ② 신을 초대하고, ③ 물과 향, 꽃, 향연(香煙), 조명, 공물 등을 봉헌한다. 즉, 힌두교 제식의 중심이 된 पू자라는 제식형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 제식문헌군의 보유문헌 시대에 의례는 베다세계를 벗어나서 힌두교적 세계로 옮겨왔다. 그리고 탈 베다화(= 힌두화)의 과정에서 아침과 저녁 일과로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가 형성되고 이후에 힌두교적 인도에서 전승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55) Gonda(1977), pp.586f를 보라.

Baudhāyana-gṛhyaśeṣasūtra		Hiraṇyakeśi-gṛhyaśeṣasūtra
1. 비슈누 신상 안치 의례	2.13	1.7.11(107.5~109.19)
2. 비슈누에 대한 매일의 예배	2.14	1.2.9(13.9~30)
3. 비슈누의 목욕 의례	2.15	
4. 루드라 신상 안치 의례	2.16	1.7.12(109.20~112.8)
5. 루드라에 대한 매일 예배	2.17	1.2.10(14.1~21)
6. 루드라의 목욕과 예배	2.18	1.2.12(16.9~17.13)
7. 푸자(Pūjā)의 일반적 규정	2.22	1.7.16(115.15~116.3)
8. 두르가(Durgā)의 예배	3.3	1.6.9(80.25~81.10)
9. 슈리(Śrī)의 예배	3.5	1.6.11(81.26~82.11)
10. 사라스바티(Sarasvatī)	3.6	1.6.12(82.12~83.2)
11. 비슈누의 예배	3.7	1.6.13(83.3~37)
12. 태양의 예배	3.8	1.6.14(83.28~84.8)
13. 제슈타(Jyeṣṭha)의 예배	3.9	1.6.15(84.9~85.6)
14. 비나야카(Vinayaka)	3.10	1.6.16(85.7~86.5)

[표 12] 보유문헌에 서술된 힌두교적 의례

[참고 문헌 및 약호]

ĀpŚS	<i>Āpastambha-śrautasūtra</i>
AV	<i>Atharvaveda-saṃhitā</i>
DP	<i>Devibhāgavata-purāṇa</i>
JB	<i>Jaiminīya-brāhmaṇa</i>
MS	<i>Maitrāyaṇī Saṃhitā</i>
NP	<i>Nārada-purāṇa</i>
PadP	<i>Padma-purāṇa</i>
RV	<i>R̥gveda-saṃhitā</i>
TA	<i>Taittirīya-āranyaka</i>
TB	<i>Taittirīya-brāhmaṇa</i>
TS	<i>Taittirīya-saṃhitā</i>
SP	<i>Skanda-purāṇa</i>
ŚaṅkhS	<i>Śaṅkha-saṃhitā</i>
ŚB	<i>Śatapatha-brāhmaṇa</i>
VP	<i>Viṣṇu-purāṇa</i>
VS	<i>Vājasaneyi-saṃhitā</i>

- 高橋 明, 「Pañcayajña(I)-グリヒヤ祭式研究」(Pañcayajñ[1], 『印度學佛教學研究』 Vol. 39~2, 1991.
- 永ノ尾 信悟, 「Mahādevapūjā: Mithilā 地方の事例報告」, Vol.14~2, 『國立民族學博物館研究報告』, 1989.
- 渡辺 章悟, 「インドの宗教に於ける「十六」の概念」, 『井上円了センター年報』 Vol.1, 1992.
- Bodewitz, H. W., *Jaiminīya Brāhmaṇa I*, 1~65. *Translation and Commentary. With a Study: Agnihotra and Prāṇāginhotra*, Leiden: E. J. Brill, 1973.
- _____, *The Daily Evening and Morning Offering(Agnihotra) according to the Brāhmaṇas*, Leiden: E. J. Brill, 1976.
- Bühnemann, Gudrun, *Pūjā: A study in Smārta Ritual*, Vienna: Gerold & Co. 1988.
- Caland, W., *Hindu Manners, Customs and Ceremonies*, Oxford: Clarendon Press, Dumont, P. E., 1906.
- _____, *Das Śrauasūtra des Āpastamba aus dem Sanskrit übersetzt* 1~7, Bu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1.
- _____, *The Jaiminīyagr̥hyasūtra*, Lahore: Punjab Sanskrit Book Depot, Dubois,

- Abbe J. A., 1922.
 _____, *L'Agnihotra. Description de l'agnihotra dans le rituel védique d'après les Śrautasūtras*, Baltimore: John Hopkins Press, 1939.
- Gonda, J., *A History of Indian Literature*, Vol.I. Fasc. 2. The Ritual Sūtras,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7.
- Goudriaan, T., *Vaikhānasa Daily Worship. According to the Handbooks of Atri, Bhṛgu, Kāśyapa and Marīci*. Indo-Iranian Journal 12(3), 1970.
- Narten, J., *Vedisch dīdāya 'leuchtet' und Zugehöriges*. Studien zur Indologie und Iranistik, 13/14, 1987.
- Oldenberg, H., *The Grhya-Sūtras. Rules of Vedic Domestic Ceremonies*, Part 1(The Sacred Books of the East, Vol.29). Delhi: Motilal Banarsidass(PDF), 1967.
- _____, *Die Religion des Veda*.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0.
- Rolland, P., *Un rituel Domestique védique. Le Vārāhagrhyasūtra*. Publication Universitaires de Lettre et Sciences Humaines d'Aix-en-Provence, 1971.
- Srinivasan, D., *Samdhyā: Myth and Ritual*. Indo-Iranian Journal 15(3), 1973.
- Vidyārṇava, R.B.S.C., *The Daily Practice of the Hindus Containing the Morning and Midday Duties*(The Sacred Books of the Hindus, Vol.20). New York; AMS Press, 1974.

국문초록

필자는 1987~1988년에 북인도에서 바라문 가장이 매일 아침 일과로서 거행하는 마하데바푸자 의례를 경험했다. 이것의 전반부는 가정 제식문헌에 기원한 삼디야우파사나 의례, 후반부는 베다시기 이후 형성된 바이슈바데바 예배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것은 슈라우타 제식문헌이 아침과 저녁 일과로 규정한 아그니호트라와는 전혀 다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인도 현지에서 관찰된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제식문헌, 제식문헌의 보조학문서, 가정 제식문헌군의 보유문헌 등을 검토하여, 현재 전해지는 삼디야우파사나 의례가 문헌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변용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슈라우타 제식문헌이 전하는 아그니호트라의 목적 셋은 ① 제화(= 태양)로 따뜻하게 된 우유를 태양(= 제화)에 뿌리는 것을 통해 실현되는 태양활성화, ② 불의 유지라는 일상행위의 의례화, ③ 아침과 저녁에 일상과 관련된 신과 존재들에 대한 예배이다. 가정 제식문헌은 첫째 목적을 이어받아 삼디야우파사나 의례를, 셋째 목적을 이어받아 바이슈바데바 의례 혹은 타르파나 예배를 성립시켰다.

그것을 가정 제식문헌군의 보유문헌이 이어받아 아침과 저녁에 행하는 삼디야우파사 의례를 처음으로 가장의 의무로 확립시켰다. 그것은 ① 입 닦기, ② 목욕(신체를 닦는 것), ③ 조식, ④ 사비트리 만트라를 읊조리기, ⑤ 태양의 예배, ⑥ 타르파나 예배라는 6개 대표적 행위로 구분되는데, 그 중 ① 입 닦기는 보유문헌에서 처음 의례화되지만, 다른 5개는 베다학생의 의무에 원천이 있다. 또한 이 규정들은 푸라나 문헌에서 유사 내용이 발견된다. 그 사실로부터, 의례가 보유문헌 시기에 처음 베다세계를 벗어나서 힌두교 세계로 옮겨왔고, 탈 베다화(= 힌두화) 과정에서 지금의 삼디야우파사나 의례가 형성되고 전승되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가장, 가정 제식, 아그니호트라, 아침 예배, 정화.

